

정답 ·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정답과 해설

교과서 갈래 특강

1 시

본문 6쪽

개념 확인 목록

- 1 운율 2 심상 3 ④ 4 ③

- 1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 2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이나 느낌을 심상이라 한다. 심상은 감각에 따라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으로 나누며,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된 공감각적 심상도 있다.
- 3 시를 낭송할 때 같은 길로 읽히는 최소 단위를 '음보'라 한다. 음보는 쉬어 읽기의 단위로, 운율 형성의 기본 단위가 되기도 한다.
- 4 어떤 대상을 유사성을 지닌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비유'라고 한다. '길은 한 줄기 넥타이처럼 풀어져'에는 '처럼'을 활용하여 '길'을 '넥타이'에 빗대어 표현한 비유가 나타나 있다.

2 시조

본문 7쪽

개념 확인 목록

- 1 시조 2 3, 6, 45 3 재 넘어 4 ①

- 1 시조는 고려 중기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었으며 현대까지 현대 시조로 계승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형시이다.
- 2 시조는 일반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진다.
- 3 시조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 4 이 시조는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낙장송'에 빗대어 표현한 시조이다.

3 매체

본문 8쪽

개념 확인 목록

- 1 매체 2 ① 3 ④ 4 상호 작용적 매체

- 1 발신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수신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을 '매체'라고 한다.
- 2 직접 만나서 음성 언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체는 말이다.
- 3 표와 그래프, 그림과 사진과 같은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효과적이고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어 독자가 내용을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표와 그래프, 그림과 사진을 사용하여 주제를 더욱 부각할 수는 있으나, 주제를 다각화하지는 않는다.
- 4 상호 작용적 매체는 기존의 매체와는 달리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또한 파일 첨부를 통해 대용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기호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소설

본문 9쪽

개념 확인 목록

- 1 허구성 2 배경 3 내적 갈등 4 전지적

- 1 사실이 아닌 일을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꾸며 낸 소설의 특성을 '허구성'이라 한다. '서사성'은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춰 사건이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특성을 말한다.
- 2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 3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 나타나 벌어지는 갈등을 말한다. 외적 갈등은 한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나 환경과의 대립을 통해 나타나는 갈등을 뜻한다.
- 4 〈보기〉에는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3인칭 시점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기'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3인칭 전지적 시점이 사용된 것이다.

5 설화

본문 10쪽

개념 확인 목록

- 1 × 2 ○ 3 × 4 ③ 5 '정토사'라는 절

- 1 설화는 문자가 아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기록된 것이다.
- 2 설화는 이야기의 특징에 따라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한다.

- 3 설화는 허구성을 바탕으로 한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 4 민담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교훈과 웃음을 주는 이야기이다.
- 오답 해설**
①, ④는 신화의 특성, ②, ⑤는 전설의 특성에 해당한다.
- 5 <보기>는 「조신의 꿈」이라는 전설의 일부이다. 절에서 일하던 조신은 꿈속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었으나 온갖 고생을 한다. 꿈에서 깬 그는 세속적 욕망이 덧없을 뿐만 아니라 욕망 성취 후에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토사를 세운다. <보기>는 해당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실제 증거물에 해당하는 '정토사'라는 절이 등장한다.

6 정보를 전달하는 글

본문 11쪽

개념 확인

- 1 정보 2 객관 3 대상 4 ②, ③ 5 (가) 예시 (나) 분류

- 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전달하는 글이다.
- 2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 3 설명하는 글의 머리말(처음)에서는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알려 주고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시한다.
- 4 진달래와 철쭉의 공통점(비교)과 차이점(대조)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5 (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전통 발효 식품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시'에 해당한다. (나)는 석탄, 석유,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 에너지를 같은 종류끼리 묶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류'에 해당한다.

7 주장을 담은 글

본문 12쪽

개념 확인

- 1 ○ 2 × 3 ④ 4 (가) 귀납 (나) 연역

- 1 주장을 담은 글은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설명문과 보고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종류에 속한다.
- 3 주장을 담은 글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주장은 주관적인 성격을, 근거는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성격을 가진다.
- 4 (가)에서는 여러 종류의 '새'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에서는 '새'의 일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닭'의 특징을 이끌어 내는 '연역'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8 보고서

본문 13쪽

개념 확인

- 1 과정 2 관찰 3 ② 4 × 5 ○ 6 ○

- 1 보고서는 결과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얻었는지 과정을 잘 서술하는 것도 중요하다.
- 2 보고서의 종류에는 조사 보고서, 실험 보고서, 관찰 보고서가 있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는 관찰 보고서이다.
- 3 보고서는 '처음-중간-끝'의 구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써야 한다.
- 오답 해설**
① 보고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써야 한다.
③ 보고서는 과정과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④ 보고서는 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되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⑤ 보고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림, 사진, 도표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 4 조사, 실험, 관찰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부분은 보고서의 '끝' 부분이다.
- 5 보고서의 자료를 수집할 때는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 6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쓸 때는 쓰기 윤리를 지켜 반드시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표현하는 나, 소통하는 우리

(1) 비유

개념 확인

본문 16~17쪽

1 비유 2 ④ 3 직유법 4 직유법 5 은유법 6 은유법 7 의인법 8 ③

확인 문제

본문 21쪽

1 ⑤ 2 ① 3 고래(돌고래) 4 ④ 5 '나'를 위로(응원)해 주려고 한다.

1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정민이의 조언에 따라 답답한 마음을 풀어 버리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고래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참고 것으로 보아 말하는 이는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굽은 내 등'을 쓰다듬어 주는 사람은 말하는 이가 아니라 친구 정민이이다.
- ③ 말하는 이는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고 있다.
- ④ 말하는 이는 고래처럼 친구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고 싶어 한다. 친구와 함께 고래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2 말하는 이는 바닷속에서 숨을 참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민이와 함께 노래를 부름으로써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3 이 시에서 바닷속에서 숨을 참다가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솟구친 '고래'는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난 존재로, '정민이와 나'처럼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고래'는 '나'가 꿈꾸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4 이 시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를 통해 대상을 더욱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다. 비유는 일반적으로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는 표현 방법이다.

오답 해설

- ① 비유 표현을 사용하면 재미있고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다.
- ② 비유 표현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흥미를 높여 준다.
- ③, ⑤ 비유는 대상을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하여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5 [서술형] 정민이가 '굽은 내 등을 지느러미로 쓰다듬어' 준 것은 답답한 마음을 가진 친구를 향한 위로 또는 응원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정민이에게 위로를 받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자 한다.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22~24쪽

1 ④ 2 무언가를 참고 있다. / 답답하다. / 힘들어한다.
3 ④ 4 ② 5 ⑤ 6 ⑤ 7 ⑤ 8 직유법

1 이 시에서 '나'는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통해 현실에서 비롯된 답답한 마음을 풀어 내려고 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지만,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나'는 정민이와 노래를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벗어나려고 할 뿐, 앞날에 대한 걱정을 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나'와 정민이는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위로를 받고 서로 의지하고 있다.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⑤ '나'는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름으로써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려 하는 것이지,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2 '참았던 곁'과 '굽은 내 등'은 모두 '나'의 심정을 드러내는 시어로, '나'가 무언가를 참고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3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친구와 노래를 부름으로써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 위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래를 부름으로써 친구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⑤ 이 시를 읽고 '굽은 내 등'에 손을 올려 주는 정민이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싶거나 우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이 시를 읽으면 참았던 것이 풀려 후련한 느낌이 들 수 있다.
- ③ 답답한 마음을 해소한 '나'가 자기처럼 주눅 들지 말고 신나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4 '나'는 고래처럼 친구와 서로 의지하면서 마음껏 바다를 헤엄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고래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참고 있다.
- ③, ④ '나'는 고래처럼 친구와 의지하며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고 싶어 한다.
- ⑤ '나'는 입에서 노래가 솟구쳐 나오고, 고래는 숨구멍에서 물줄기가 솟구쳐 나온다.

5 '노래를 부르는 것'과 '고래가 튀어나오는 것'은 막혀 있던 것이 터져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고래가 튀어나오는 것'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6 ②는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④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⑦는 ④에 비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므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④가 아니라 ⑦이다.

7 이 시에서는 ‘노래 부르는 것’을 ‘고래가 튀어 나오는 것’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유를 활용하면 강렬하고 참신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미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비유 표현을 통해 독자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8 ‘구름에 달 가듯이/가는 나그네’는 ‘~듯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나그네가 가는 모습을 구름에 달이 가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비유 중에서 직유법에 해당한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26~27쪽

1 ① 2 ③ 3 ③ 4 ⑤

1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은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표현하려는 대상을 이어 주는 말 없이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 은유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오답 해설

- ②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야구공이 날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유성’을 ‘빛나간 야구공 하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유성이 나타나는 순간을 ‘먼 곳에서 아슴푸레 빈 우렛소리’로 표현하고 있다.
- ④ 유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모습을,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인 ‘뽕그랑’으로 표현하여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 ⑤ 밤하늘에 뜬 수많은 별이 마치 운동회를 벌이는 아이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밤하늘을 ‘운동장’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2 <보기>는 모두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 비유인 의인법이 사용된 시구이다.

오답 해설

- ① 속담이나 격언에 빗대어 표현하는 풍유법은 관련이 없다.
- ② 대상의 부분이나 성질로 대상을 표현하는 대유법은 관련이 없다.
- ④ 연결어를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은 관련이 없다.
- ⑤ 대상 간에 이어 주는 말 없이 암시적으로 빗대는 은유법은 관련이 없다.

3 우영우는 최수연이 봄날의 햇살처럼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 주고 항상 배려해 주기 때문에 ‘최수연’을 ‘봄날의 햇살’에 비유하고 있다.

4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는 연결어 ‘같아(같다)’를 사용하여 ‘너’를 ‘봄날의 햇살’에 빗댄 직유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먼 해안선과 다정한 형제 섬’은 사람이 아닌 ‘섬’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29쪽

1 ② 2 꼭 필요한(없어서는 안 될)

1 시간이 좀 지나서 즐겁게 어울렸다고 하였으므로 처음에는 친밀감이 없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빈칸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대수롭지 않게 예사로운 모양’을 뜻하는 ‘데면데면’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 ‘산소와 같은’이 의미하는 바는 산소의 역할과 관련해 볼 때 ‘꼭 필요한(없어서는 안 될)’이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32~33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④ 05 서로 의지하며 함께한다. 06 ③ 07 ⑤ 08 ① 09 ⑤ 10 ③는 밤하늘을, ⑥는 유성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01 ‘고래고래’에서 시의 중심 소재인 ‘고래’를 연상하게 하고 있다(㉠). ‘고래고래’, ‘뽕!’, ‘우우 우우 우우 우우’와 같이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또한 ‘숨소리’를 ‘분수’에, ‘노래를 부르는 것’을 ‘고래가 튀어나오는 것’에, ‘정민이랑 나’를 ‘둘이서 세상 끝까지 헤엄 치는 돌고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현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 ㉢ 이 시에는 대조적인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02 이 시에서 어려움에 처한 ‘나’를 위로해 주는 정민이의 모습을 통해, 나도 정민이와 같이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시에서는 친구와 함께 사이 좋게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②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노래를 부르며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있다.
- ③ 이 시에서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시의 ‘고래’는 빗대어 표현하는 데 활용한 소재일 뿐이다.

03 ㉠을 통해 바닷속에서 숨을 참았던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므로 현실에서 답답함을 느끼다가 이를 벗어나 후련함을 느끼게 됨을 알 수 있다.

04 ㉡은 ‘숨소리’를 ‘치럼’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분수’에 직접 빗대는 직유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오답 해설

- ① 대상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하는 과장법은 관련이 없다.
- ② 사물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제유법은 관련이 없다.
- ③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은 관련이 없다.
- ⑤ 슬픔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영탄법은 관련이 없다.

05 [서술형] 이 시에서는 정민이와 ‘나’를 ‘둘이서 세상 끝까지 헤엄치는 돌고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정민이와 ‘나’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06 (가)에서는 '밤하늘'을 '별들의 운동장'에, '유성'을 '빗나간 야구공 하나'에 빗대어 표현하였으며, (나)에서도 '최수연'을 '봄날의 햇살'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나)에서는 최수연이 우영우를 도와주었던 상황이 하나씩 나열되어 있지만, (가)에서는 대상의 나열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의 표현은 (가), (나)에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나)에서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은 비슷한 어구를 반복하여 최수연의 성격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반복은 (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 (나)에는 점층적인 표현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07 (가)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모습과 유성의 생동감을 노래한 시이다. 자연 현상을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을 뿐, 불안한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말하는 이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고 있다.
- ②, ③ '뽕그랑', '아득히 들리는 함성', '우렛소리' 등의 시어를 활용하여 청각적인 느낌과 유성의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밤하늘의 별들과 유성을 밝게 표현한 것에서 자연 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08 (나)에서 우영우는 '최수연'이 항상 '봄날의 햇살'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고 염려해 주며 배려해 준 것에 감사해하고 있다. 우영우에게 있어 '최수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09 ㉠에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에도 사람이 아닌 석류가 사람처럼 '시치미를 떼다.'고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목련 봉오리가 벌어지는 모습을 소리가 나는 것처럼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온종일 소리가 난다고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잔설처럼 깔린 황혼'에 직유법이 나타나 있다.
- ③ '뽕뽕새야 뽕뽕새야', '뽕뽕뽕', '허리 허리'처럼 시어를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에 은유법이 나타나 있다.

10 [서술형] ㉠는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이 운동회를 벌이는 아이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밤하늘'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며, ㉡는 유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야구공이 날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성'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2) 상징과 운율

본문 34~35쪽

개념 확인

- 1 상징 2 ⑤ 3 구체화 4 (1) ㉠ (2) ㉡ 5 운율
- 6 ④ 7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 엄마야 누나
야 강변 살자. 8 ④

확인 문제

본문 39~40쪽

- 1 ④ 2 ④ 3 ⑤ 4 ① 5 의인법 6 ④ 7 ④
- 8 달은 밝음과 과묵함을 지녔다.

1 이 시조에서 말하는 이는 다섯 자연물을 소개한 후 소나무가 지닌 덕을 칭찬하고 있다. 따라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예찬적'이란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 해설

- ① '비판적'이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의자적'이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적극적이고 강한 것을 말한다.
- ③ '애상적'이란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을 말한다.
- ⑤ '체념적'이란 품었던 생각이나 기대, 희망 따위를 아주 버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이 시조에서 '솔(소나무)'은 꽃이나 잎처럼 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솔'은 이와 같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더위나 추위를 견디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 솔은 예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②, ⑤ 제4 수에서 다른 사물이란 '꽃'과 '잎'을 말하는데, '꽃'과 '잎'은 '솔'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솔'이 다른 사물과 조화를 이루거나 다채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솔'을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3 제4 수에서 솔은 '눈서리'를 모르고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눈서리'는 솔에게 가해지는 외부의 고난이나 시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4 시조는 보통 한 장을 네 번에 끊어 읽는데, 이를 4음보의 운율이라고 한다. 보통 3, 4글자가 하나의 끊어 읽기 단위인 음보가 된다. 따라서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와 같이 끊어 읽을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두어라 V 이 다섯밖에 V 또 더하여 V 무엇하리

- ③ 더우면V꽃 피고V추우면V 잎 지거늘
 ④ 술아V너는 어찌V눈서리를V모르는가
 ⑤ 구천에V뿌리 곧은 줄을V그로 하여V아노라

5 자연물을 '내 벗'이라 칭하고, '술'을 '너'라고 표현한 것은 의인법에 해당한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6 제2 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이 ~하나 ~를 ~한다'라는 구조의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② 의도적으로 시어를 변형하고 있지 않다.
 ③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일정한 위치에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7 제3 수에서 피자마자 쉽게 지는 '꽃'이나 푸르러지자 곧 누른 빛을 띠는 '풀'과 달리 '바위'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바위의 '불변성'이라는 덕을 예찬하고 있다.

8 [서술형] 제6 수에서는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는 밝음과 보고도 말하지 않는 과묵함을 지닌 달을 예찬하고 있다.

이해+탐구 | 응용 문제

본문 41~44쪽

- 1 ① 2 ③ 3 ② 4 ④ 5 지조, 절개, 불변함 등
 6 ② 7 ④ 8 ⑤ 9 ⑤ 10 ④

1 이 시조에서 제1수는 「오우가」라는 연시조의 중심을 이루는 소재 다섯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제1 수는 제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시조에서 말하는 이가 소개하는 '내 벗'은 수석(水石), 송죽(松竹), 달이다. '산'은 말하는 이가 언급한 '내 벗'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돌(바위)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달은 만물을 비추고 과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물은 깨끗하고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곧고 속이 비어 있으며 늘 푸르른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갖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는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한 설의적 표현으로, '다섯이면 충분하다.'라는 의미이다.

4 제4 수에서 변함이 없는 '술'과 대비되는 것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꽃'과 '잎'이다.

5 말하는 이는 눈과 서리를 맞아도 변함이 없는 술의 모습을 보

고 땅속 깊이 뿌리가 굳게 뻗어 있다는 것을 알겠다고 말한다. 즉 술이 지닌 지조와 절개, 불변함 등의 덕성을 예찬한 것이다.

6 상징은 원관념 없이 보조 관념만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따라 주제를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독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작품의 의미가 풍부해진다. 그러나 상징 표현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7 이 시조의 운율은 시조라는 정형시의 기본 운율인 4음보의 음보율에서 비롯된다. 음보율은 일정한 마디 수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조의 음보율은 기본적으로 리듬감을 형성하면서 시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운율은 시를 읽는 재미를 주기도 하며 작품만의 독특한 어조와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음보율과 표현 방법의 다양성은 거리가 멀다.

9 시의 처음과 끝에 같은 시구를 배치하는 것은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이 시에서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마을'이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② '앞마을 냇가에선 / 풍풍 포웅 풍', '뒷마을 연못에선 / 풍풍 푸웅 풍'과 같이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③ '풍풍 포웅 풍', '풍풍 푸웅 풍' 등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④ '풍풍 포웅 풍', '풍풍 푸웅 풍'에서 자음 'ㅍ', 'ㅇ', 모음 'ㅏ', 'ㅓ' 등을 반복하고 있다.

개념 플러스

수미상관

(1) 뜻: 문학적 구성 기법의 하나로, 주로 시가(詩歌)에서 많이 쓴다. 첫 연을 끝 연에 반복해서 쓰거나,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효과

- 같은 어구를 반복함으로써 뜻을 강조한다.
- 처음과 끝이 균형을 이루어 안정감을 준다.
- 여운을 통해 감동을 마무리하는 효과가 있다.
- 처음과 끝에 같은 운율을 되풀이하여 음악적 효과를 살린다.

10 <보기>의 시에서는 '꼭꼭꼭'이라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적용+성찰 | 응용 문제

본문 45~47쪽

- 1 ④ 2 우정 3 ② 4 ① 5 같은 시어를 반복하고,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을 반복한다.

1 이 글의 어린 왕자에게 있어 '내 장미'는 내가 직접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 주었으며,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 주고 벌

례를 잡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평과 허풍, 침묵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즉 ‘별레를 잡아 준 꽃’은 어린 왕자에게 특별한 존재를 상징한다.

오답 해설

- ① ‘장미꽃’은 일반적으로 아름다움, 열정, 정열을 상징한다.
 ⑤ ‘너희들은 비어 있어.’에서 비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길들여지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 플러스

‘어린 왕자’의 전체 줄거리

비행사인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을 때 어린 왕자를 만났다. 어린 왕자는 다른 별에서 왔는데 그 별에 자신만의 장미꽃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별을 떠나 다른 별들을 여행하며 왕이나 허영심 가득한 사람, 술고래, 상인, 가로등 켜는 사람, 지리학자 등 여러 인물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다 일곱 번째로 온 곳이 지구였다. 그는 사막에서 여우를 만나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자신과 자기 별의 장미꽃이 특별한 관계였음을 깨닫고 자신의 별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어린 왕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나’는 자신도 그와 특별한 관계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에 관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 2 시계는 전학 간 친구가 항상 같은 시간을 공유하자며 준 선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거야.’에서 ‘시계’는 우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3 ‘쟁반같이 둥근 달이 뜬다.’는 ‘달’을 ‘쟁반’에 빗대어 표현한 비유가 사용된 표현이다.

오답 해설

- ① ‘반지’는 ‘약속’,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
 ③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상징한다.
 ④ ‘오룡기’는 ‘세계 평화와 협력’을 상징한다.
 ⑤ ‘해’는 ‘절대 권력’이나 ‘우두머리’를 상징한다.
 4 「키읔」에서는 ‘쿨쿨, 쿵쿵, 킴킴, 콧콧, 꼴꼴, 크크’ 등에서 ‘ㄱ’음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시에서 이와 같이 동일한 음을 반복하면 시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흥을 돋우는 효과가 있다.
 5 〈보기〉의 시에서는 ‘찰박’, ‘맨발’이라는 시어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찰박’은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이다. 즉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고, 같은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어휘력 뽐뿌 | 응용 문제

본문 49쪽

1 ② 2 막역지우, 죽마고우

- 1 ‘눈 와야 술이 푸른 줄 안다.’는 눈이 오는 겨울에 다른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져 있으나 소나무만 푸른 잎이 남아 있는 상황을 담고 있다. 즉 술의 변함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 2 생각이 어긋나거나 거스름이 없는 친구를 ‘막역지우(莫逆之友)’라고 하고, 어린 시절부터 대나무로 만든 말을 함께 타고 놀면서 함께 자라 온 친구를 ‘죽마고우(竹馬故友)’라고 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52~53쪽

-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① 06 ②
 07 ‘꽃’이나 ‘잎’은 계절에 따라 변하지만, ‘술’은 계절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다. 08 ③ 09 ③ 10 ⑤ 11
 ㉠이 상징하는 것은 열정과 아름다움이고, ㉡이 상징하는 것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 01 시조는 한 장을 네 마디씩 끊어 읽는 4음보의 율격을 기본으로 한다.

- 02 이 시조에 등장하는 자연물은 모두 인간이 본받아야 할 덕성을 가진 자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선 시대 양반들이 추구했던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다.

오답 해설

- ① ‘수석, 송죽, 달’은 인간과 대비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본받을 만한 덕을 갖춘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③ 다섯 벼이 아름답다고 하지는 않았다.
 ④, ⑤ 다섯 자연물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 03 이 시조에서는 자연물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제1 수의 초장에서 ‘내 벼이 몇인가 하니’라고 묻고 ‘수석과 송죽이라’라고 스스로 답하고 있다.
 ③ 자연물 다섯을 벼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제4 수에서 ‘술’과 ‘꽃’, ‘잎’을 대조하여 ‘술’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⑤ 이 시조에 등장하는 자연물의 특성은 모두 유교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

- 04 제4 수에서 말하는 이는 소나무의 변하지 않는 덕을 예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제를 고려할 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지니고 싶다는 반응이 가장 적절하다.

- 05 ㉠에서 ‘두어라’는 옛 시에서 어떤 일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의 마음을 달랠 때 영탄조로 하는 말이다. 그리고 다섯 벼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에는 자연과 벗하는 만족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보기〉의 말하는 이 역시 산촌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촌에 눈이 오니～」

신혼이 인목대비 폐위 사건에 연루되어 고향인 춘천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시조로, 산촌에서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 갈래: 평시조, 단시조
- 성격: 자연 친화적
- 제재: 밤중의 산골 마을
- 주제: 자연에서 은거하는 한적한 삶

06 ‘눈서리’는 ‘솔’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 환경으로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

07 [서술형] 제4 수에서 ‘솔’과 상반되는 특성을 가진 소재는 ‘꽃’과 ‘잎’이다. ‘꽃’과 ‘잎’이 외부 환경에 의해 변하는 존재들임에 비해, ‘솔’은 시련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존재이다.

08 (가)에는 자음 ‘ㅍ, ㅇ’과 모음 ‘ㅏ, ㅑ’가 반복되고 있다. 자음 ‘ㄴ, ㄹ, ㅁ, ㅇ’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이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앞마을’, ‘뒷마을’에서 ‘마을’이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 ② 이 시에서 반복된 자음은 ‘ㅍ, ㅇ’. 모음은 ‘ㅏ, ㅑ’이다.
- ④ ‘앞마을 벗가에선 / 풍풍 포옹 풍’, ‘뒷마을 연못에선 / 풍풍 푸옹 풍’과 같이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 ⑤ 이 시는 ‘풍풍’, ‘풍풍’과 같이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9 어린 왕자에게 ‘내 장미’가 소중한 까닭은 길들이러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길들였기 때문이다.

10 (다)에는 비유가 사용되지 않았다. (다)에서는 ‘ㄱ’ 음이 사용된 말을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살리면서 일상적 소통의 과정을 재미있고 감각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말하는 이는 시시콜콜 적어 보낸 자신의 문자에 대한 답이 ‘ㄱ’이라고만 온 것에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ㄱ’ 음이 사용된 ‘쿨쿨, 쿵쿵, 컴컴, 콕콕, 콜콜, 크크’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 ③ ‘온종일 쿵쿵대는 내 맘’에서처럼 말하는 이는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전달했지만 ‘너’는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쿨쿨’, ‘콕콕’처럼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1 [서술형] 일반적으로 ‘장미꽃’은 ‘열정’, ‘아름다움’ 등을 상징한다. ㉠은 평범한 장미꽃이므로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 ‘내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이진 장미로 ‘특별한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3)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

본문 54~55쪽

개념 확인 **목표**

- 1 인터넷 2 상호 작용 3 ④ 4 (1) ① (2) ⑦ 5 ⑤
6 ④ 7 ⑤ 8 ②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58~63쪽

- 1 ① 2 공적인 공간에 새말이나 어법에 어긋나는 줄임말을 사용하고, 개인 정보를 공개하였다. 3 ④ 4 ③ 5 ④
6 ① 7 ④ 8 개인적인 9 ⑤ 10 ④

1 ㉡는 문학 동아리 회원 학생들이 문학 행사를 준비하면서 나누는 인터넷 대화방의 대화 내용이다. 학교 누리집 게시판의 일부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②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시 선물하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대화 내용이다.
- ③ 문학 동아리 ‘복적복적’의 구성원들이 인터넷상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이다.
- ④ 게시 글의 문제점을 수정할 방법을 함께 의논하고 있다.
- ⑤ ‘정윤’은 그림말을 사용하여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2 ‘태호’의 홍보물에는 ‘찌는, ping작, 득템’과 같은 새말이나 줄임말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새말이나 어법에 어긋나는 줄임말은 다른 사람들이 대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공적인 공간에 개인의 휴대 전화 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3 ‘시 선물하기 행사’의 기대 효과에 관한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없다.

4 ‘태호’는 홍보물을 올린 당사자이므로 홍보물에 대한 댓글에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답 해설

- ① ‘희진’은 공적인 공간에서 ‘태호’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말하고 있다.
- ② ‘라온’은 행사 당첨자에게 최신 휴대 전화 무선 충전기를 준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올렸다.
- ④ ‘희진’이 개인적인 내용을 올리고 ‘라온’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올린 것은 누리집의 공공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⑤ ‘건우’는 ‘라온’이 말한 정보를 무작정 믿고 ‘저 바로 참여하려 갑니다!’라고 하였다.

5 〈보기〉는 누리집에 적절하지 않은 새말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줄임말을 고쳐 쓴 것이다. 이는 새말이나 줄임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 쓴 것이다.

6 누리집으로 소통할 때 남의 의견에 무조건 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7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댓글을 달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이모티콘을 비롯한 다양한 기호를 활용하여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8 <보기>의 표현은 개인적인 친분을 표현하는 것과 새말, 줄임말을 사용한 것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누리집에서는 사용하지는 안 되지만, 개인적 성격이 강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이 허용된다.

9 교내 위험 구역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내용이므로, 공공성이 강한 누리집을 활용하여 정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상호 작용적 매체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소통이다. 자신만 아는 개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상호 작용적 매체에는 공적인 성격을 띠는 누리집과 사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정보를 공유할 때는 각 매체의 특성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 ② 맥락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 ③, ⑤ 상호 작용적 매체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누군가 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용+성찰 | 응용 문제

본문 64~67쪽

1 ② 2 ⑤ 3 ② 4 ③ 5 ③

1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홍보할 때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매체는 글,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2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한 복도 만들기’ 캠페인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관점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다.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매체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누리집이다.

3 물 절약 포스터에는 ‘절약!’과 같이 명사를 활용하거나 ‘~해요’와 같이 친근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지만, 반말을 활용하여 친근감을 유도하는 언어적 표현은 찾을 수 없다.

4 국민 참여 공간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혁신 제안 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상호 보완적 매체에 해당하는 것은 도서관 이용법을 공지하는 학교 누리집이다.

오답 해설

- ① 신문 기사는 정보의 소통이 일방향적인 대중매체에 해당한다.
- ②, ④, ⑤ 개인 인터넷 방송, 여행 블로그, 온라인 대화방은 모두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한다.

5 공공 기관의 누리집에 공식적인 제안을 올릴 때에는 기호를 활용하기보다는 정중한 언어로 예의 바르면서도 논리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69쪽

1 ③ 2 소통

1 ‘민수는 여름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맥이 빠진다.’에서 ‘맥’은 ‘기운이나 힘’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 ①, ②, ④, ⑤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을 의미하는 ‘맥락’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2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소통(疏通)’이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72~73쪽

01 ⑤ 02 ③ 03 ③ 04 인터넷 댓글 내용을 무작정 믿지 말고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05 ② 06 ① 07 ④ 08 새말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줄임말을 사용하였다.

01 (다)는 학교 누리집 게시판의 댓글로,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밝히고 있으므로 익명성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시 선물하기’라는 문학 행사의 홍보물이다.
- ② (나)는 인터넷 대화방을 이용한 소통이므로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 ③ (다)에는 댓글과 그 댓글에 대한 댓글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는 (나) 대화방의 화제로, 학교 누리집에 게시될 홍보물 내용이다.

02 누리집에 게시할 공식적인 행사이므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가)에서 이미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03 (나)는 인터넷 대화방에서의 대화이다. 인터넷 대화방은 공적인 공간인 누리집과는 달리 개인적인 공간이므로 격식 있는 언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문학 동아리 '북적북적'의 대화방으로 정윤, 지민, 태호 3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화방에서는 대화 참여자에게만 내용이 공개된다.
- ②, ④, ⑤ (나)와 같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생각이나 의견,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며,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자유롭게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림말을 사용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전할 수 있다.

04 [서술형] (다)에서 '한건우'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 제시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행동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조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매체를 활용할 때 (가)와 같이 공적인 성격이 강한 누리집의 경우에는 공동의 관심사를 주제로 선택할 필요가 있지만, (나)와 같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반드시 공동의 관심사를 주제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06 (가)는 '시 선물하기' 행사를 홍보하는 누리집 게시물이고, <보기>는 국민 참여 정책 제안 공간인 '혁신 제안 톨'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가)와 <보기> 모두 공적인 목적을 가진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⑤ 개인적인 의견 공유와 자유로운 표현은 (나)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07 (나)에는 '시 선물하기' 행사에 참여한 내용과 그에 대한 여러 명의 댓글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행사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게시자는 '정서정'이다.
- ② '상큼한 사과'가 꿀뱅이(@)를 사용하여 '물 만난 물고기'를 지정하여 불러오고 있다.
- ③ '#북적북적'/'#시_선물하기'/'#꽃'에서 해시(#)를 통해 게시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 ⑤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다.

08 [서술형]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는 개인적 특성을 가진 상호 작용적 매체이므로 '핑작'이나 '득템'과 같은 새말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줄임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본문 80~85쪽

- 01** ② **02** ④ **03** ⑤ **04** ④ **05** ② **06** ①
07 ② **08** '쿨, 쿵, 컴, 콕, 콜, 크'와 같은 소리가 반복되고 있다.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09** ⑤
10 말하는 이는 다섯 빛과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 **11** ①
12 ③ **13** ④ **14** ② **15** '빛나간 야구공 하나'는 시의 제목인 '유성'을 비유한 것으로, 둘은 땅으로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16** ③ **17** ⑤ **18** ④ **19** ④
20 ⑤ **21** ①은 상징을 활용한 표현이고, ②는 비유를 활용한 표현이다. **22** ④ **23** '핑작, 득템'과 같은 새말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줄임말을 사용하였으며 개인 정보를 노출하였다. **24** ① **25** ⑤ **26** ③ **27** ② **28** ⑤

01 (가)~(마)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시와 노랫말이다.

오답 해설

- ① 대화와 지시문으로 이루어진 글은 희곡이나 시나리오이다.
- ③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상상하여 꾸며 낸 글은 소설이나 극본이다.
- ④ 작가의 경험이나 생각을 개성 있게 표현한 글은 수필이다.
- ⑤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은 설명문이다.

02 (라)에서는 동일한 시어나 비슷한 문장 구조, 동일한 자음과 모음의 반복을 통해 봄비 내리는 소리를 듣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상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고래고래', '우우' 등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 ② (나)는 '내 벗이 몇인가',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가'처럼 질문하거나 '수석과 송죽이라'처럼 답을 하여 시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은유법과 의인법을 활용하여 별이 많이 뜬 밤하늘의 아름다움과 유성의 생동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마)는 문자를 통한 현대인의 소통 방식을 소재로 하고 있다.

03 (가)의 '분수처럼 숨소리가 하늘 높이 솟구치는 기분', '정민이랑 나랑 둘이서 세상 끝까지 헤엄치는 돌고래처럼'에는 연결어 '처럼'을 사용하여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사물을 실제보다 더 크고 넓게 표현하는 과장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② 문장 구조를 바꾸어 표현하는 도치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대상을 크기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열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대립되는 의미의 단어나 어절을 사용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대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04 (나)의 제4 수에서 '술'은 쉽게 변하는 '꽃', '잎'과 달리 변함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즉 '술(소나무)'가 지닌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덕성을 예찬한 것이다. 따라서 ④와 같은 반응이 적절하다.

05 「오우가」는 연시조로, 제1~6 수는 시조의 4음보를 지니고 있다. 초장, 중장, 종장은 각각 네 마디로 끊어 읽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제1 수, 제4 수, 제3 수 모두 초·중·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제3 수에서 ‘꽃’은 피자마자 지는 존재이며, ‘풀’ 역시 푸르러지자 곧 누른 빛으로 변하는 존재이다. 제4 수에서도 ‘꽃’은 쉽게 변하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 ④ 제4 수의 ‘술’과 제3 수의 ‘바위’는 변함없음이라는 덕성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 ⑤ 작가는 자연을 벗 삼아 지내며 인간이 본받을 만한 덕을 지닌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06 (다)는 별이 많이 뜬 밤하늘에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시이다. 생동감 넘치는 비유와 의성어를 활용하여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07 (라)에서는 ‘포웅, 푸웅’에서 시어를 변형시키는 모습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앞마을’, ‘뒷마을’에서 의도적으로 시어를 변형하지는 않았다.

08 [서술형] (마)에서는 자음 ‘ㄱ’이 들어간 ‘쿨, 쿵, 킴, 콧, 콜, 크’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낸 ‘쿨쿨, 쿵쿵, 콧콧’ 등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09 ㉠에서 ‘굽은 내 등’은 무언가를 참고 힘들어하는 말하는 이의 모습을 의미하며, ‘지느러미로 쓰다듬어 주더라’는 친구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정민이는 말하는 이에게 “힘들지만 함께 이겨 내자.” 같은 위로하는 말을 건넬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0 [서술형] ㉠은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다섯 벗과 사는 삶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더하여 무엇하리’는 다섯 벗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11 (가)의 ‘뽕’과 ‘우우’, (나)의 ‘쨍그랑’은 의성어, (가)의 ‘고래고래’, (나)의 ‘포르르’는 의태어로, 각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가)와 (나)에서 의도적으로 시어를 변형한 시구나 시행은 찾을 수 없다.
- ③ (가)에서 ‘~는 기본’, ‘~했어’를 반복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에는 시의 처음과 끝에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는 수미상관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두 시는 자유시로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 읽도록 시행을 배치하고 있지 않다.

12 (가)에서 말하는 이는 정민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노래를 부르기 이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노래를 부름으로써 후련함을 느끼고 있다.

13 (가)의 말하는 이는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답답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친구에게 위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처럼 시

험 성적 때문에 기운이 빠져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4 ㉠에는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햇빛이 이마를 툭 건드린다.’도 햇빛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 ③ ‘발소리’를 ‘같은’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배춧잎’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④ 문장 구조가 비슷한 구절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리듬감을 형성하는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 ⑤ 상황을 서술하고 있을 뿐, 특별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15 ㉠이 비유하는 대상은 ‘유성’이다. ㉠과 ‘유성’은 땅으로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16 ㉢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다. 여기서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숨소리’이고 빗대어 표현한 대상은 ‘분수’이므로, 원관념은 ‘숨소리’, 보조 관념은 ‘분수’이다.
- ② ㉢은 연결어 ‘처럼’을 사용하여 ‘돌(정민이와 나)’을 ‘돌고래’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 ④ ㉣ ‘별들의 운동장’은 ‘밤하늘’을 빗대어 표현한 보조 관념으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⑤ ㉤에는 먼 곳에서 빈 우렛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7 (나)에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는 상징이 사용되었다. 대상의 소리와 모양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② (가)에서 말하는 이는 ‘수석, 송죽, 달’을 ‘벗’이라고 하여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이 다섯 외에 더 이상의 벗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변함이 없는 ‘술’의 덕을 예찬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장미꽃’과 ‘여우’등 동식물을 등장인물로 표현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18 (가)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과 4음보의 음율이 시의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19 (가)는 4음보의 율격을 기본 운율로 하는 시조로, ‘술아V너는 어찌V눈서리를V모르는가’로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20 ‘구천’은 ‘땅속 깊은 곳’을 뜻하는 말로,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시어로 보기는 어렵다.

21 ㉠에서 ‘내 장미’는 ‘소중한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에 비해 ㉢는 ‘최수연’이라는 인물을 ‘봄날의 햇살’에 빗대어 표현하였으므로 비유가 사용되고 있다.

- 22 (나)는 누리집의 댓글로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지만, (다)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의 소통이므로 개인적 공간에서의 소통이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시 선물하기' 행사를 홍보하고 있고, (다)는 행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② (가)에는 '핑작', '득템' 등 새말과 어법에 맞지 않는 줄임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특징에 해당한다.
 ③ (나)는 누리집의 댓글로, 댓글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⑤ (다)에서는 그림을 활용하여 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23 [서술형] (가)에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누리집에 올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가)에 쓰인 '핑작', '득템'을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며,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누리집의 특성상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

- 24 (나)는 누리집의 댓글이고, 제시된 매체는 지역이나 사회의 문제로 소통하는 혁신 제안 특으로, 모두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오답 해설

- ②, ③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특징에 해당한다.
 ④ 단체 대화방과 같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댓글을 달 수 있지만, 공적인 성격이 강한 누리집은 누구든지 댓글을 달 수 있다.
 ⑤ 사회 관계망 서비스나 누리집과 같은 상호 작용적 매체는 대체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 25 (다)는 많은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만나 관심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사진이나 동영상, 글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 26 (다)와 같은 상호 작용적 매체를 사용하여 소통할 때는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 또한 누군가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다)는 상호 작용적 매체 중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공식적인 언어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7 (나)는 누리집의 댓글 창으로 공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경험에 대한 개인적 느낌을 친구에게 털어놓는 상황은 개인의 의견, 감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28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은 해당 단어가 포함된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서술·논술형 문제

본문 86~87쪽

01 (가)와 (나)는 모두 운율이 있는 시로 리듬감을 준다. (가)는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는 운율이 규칙적으로 드러난다.

02 (나)에서는 쉽게 변하는 '꽃'과 '잎'이 변함이 없는 '술'과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술'과 같은 변함없는 덕성을 본받기를 바라고 있다.

03 ㉔에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는데, (나)에서도 자연물을 '벗'이라고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04 비유를 사용하여 참신한 느낌을 주면서 인상 깊게 표현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 참신한 느낌을 주면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흥미를 높여 준다. / 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흥미를 높여 준다.

05 (가)와 (나)는 모두 인터넷이나 디지털 형식의 의사소통 매체인 상호 작용적 매체이다. (가)는 공적인 공간인 누리집이므로 공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나)는 개방적 공간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이므로 개인의 생각과 의견,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다.

06 (나)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누리집의 댓글이므로 참여자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드러내서는 안 되지만, <보기>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이므로 개인적인 친분을 드러낼 수 있다.

평가 요소 시의 운율 이해하기

- 01 (가)와 (나)는 모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시로, 운율을 통해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가)는 시의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자유시로, 시의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나)는 4음보의 율격이 있는 정형시로, 시의 운율이 규칙적으로 드러난다.

채점 기준	배점
(가)와 (나)에 나타난 운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한 문장으로 바르게 서술한 경우	10점
(가)와 (나)에 나타난 운율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상징 표현 이해하기

- 02 <보기>에 따르면 상징은 추상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으로 보조 관념만 드러난다. (나)의 제4 수에서는 '꽃', '잎'이 '술'과 대립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꽃'과 '잎'은 쉽게 변하지만 '술'은 변하지 않는 덕을 지닌다. 말하는 이는 이와 같은 '술'의 덕을 인간과 연관 지어 변함없는 덕성을 본받기를 바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대립적인 시어와 그 의미를 밝혔으며, 작품을 통해 전하는 바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10점
대립적인 시어와 그 의미를 밝혔으나 작품을 통해 전하는 바를 바르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 대립적인 시어와 그 의미를 밝히지 못했으나 작품을 통해 전하는 바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표현 방법 파악하기

- 03** <보기>의 ㉠은 별들이 가득 찬 밤하늘을 아이들이 운동회를 벌이는 것으로 표현하여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즉 ㉠에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나)에서도 자연물인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내 벗’이라고 하며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에 쓰인 표현 방법의 종류를 밝히고 (나)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에 쓰인 표현 방법의 종류를 밝히지 못했으나 (나)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7점
㉠에 쓰인 표현 방법의 종류를 밝혔으나 (나)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5점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표현 방법의 효과 파악하기

- 04** 비유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대상을 인상 깊고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흥미를 높여 준다.

채점 기준	배점
비유의 표현 효과를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비유의 표현 효과를 한 개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상호 작용적 매체의 소통 방식 파악하기

- 05** (가)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문학 동아리 단체방에서 나눈 대화, (나)는 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홍보물과 홍보물에 대한 댓글이다. 둘 다 인터넷이나 디지털 형식의 상호 작용적 매체로, 참여자의 상호 작용이 강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가)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개방적인 공간이지만, (나)는 공적인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가)와 (나)의 소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통 공간의 종류를 포함하여 적절히 제시한 경우	10점
(가)와 (나)의 소통 방식의 차이점을 제시하였으나 소통 공간의 종류를 포함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5점
15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상호 작용적 매체의 특징 파악하기

- 06** (나)는 학교 누리집에 올린 시 선물하기 행사 홍보와 그에 달린 댓글이다. 학교 누리집은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과 같이 개인적인 친분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보기>는 개방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과 같이 참여자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드러내기도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나)와 <보기>의 소통 방식의 특징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나)와 <보기>의 소통 방식의 특징을 제시하였으나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7점
(나)와 <보기>의 소통 방식의 특징을 서술하였으나 ㉠의 문제점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2 간추리는 재미, 전달하는 보람

(1) 요약하며 읽기

개념 확인 **꼭꼭**

본문 90~91쪽

- 1 요약하기 2 중심, 기억 3 ① 선택 ② 반복 ③ 포괄
④ 재구성 4 버섯은 식물이 아니다. 5 ○ 6 ×
7 ○ 8 ④ 9 ②

확인 문제

본문 95~97쪽

- 1 ③ 2 ① 3 ④ 4 ③ 5 ④ 6 일반화 7 ⑤

- 1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설명하는 글은 글에서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논설문을 요약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②, ④ 이야기 글을 요약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⑤ 수필을 요약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 2 이 글은 ‘매운맛’의 정체와 매운 음식에 끌리는 까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3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글의 구조상 ①은 ‘처음’ 부분에 해당한다. 설명문의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글을 쓴 동기와 목적을 소개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한다. 설명문에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곳은 ‘끝’ 부분이다.

오답 해설

- ① 설명 대상인 ‘매운맛’을 소개하고 있다.
② 국내외에서 매운맛이 인기를 끄는 현상을 전하고 있다.
③ ‘그렇다면 사람들은~까닭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⑤ ‘전통 음식인~출시될 정도이다.’와 같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4 ②는 중심 내용이 마지막 문장인 ‘매운맛을 느끼는 맛 수용체가 없으므로 매운맛은 미각으로 느끼는 맛이 아니다.’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마지막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한다.

오답 해설

- ①, ② ①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둘을 선택하고 연결하여 요약한다.
④, ⑤ ③은 마지막 문장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한다.

- 5 이 글은 처음 부분에서 ‘매운 음식의 인기’라는 현상을 제시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글의 중간 부분에서 밝히고

있다. 즉,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그 ‘원인’을 찾아 가는 내용 전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에서는 매운맛의 인기로 인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매운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말라는 것은 해결 방안이라기보다 글쓴이의 당부일 뿐이다.
②, ③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매운맛이다. 두 대상의 차이점을 설명하거나 여러 종류를 나열하지는 않고 있다.
⑤ 매운맛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현재 상황만 제시할 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 6 [서술형] 구체적인 개념이나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말을 포괄하는 말로 묶는 요약하기의 방법은 ‘일반화’이다.

- 7 ⑤와 ⑥에서는 매운 음식에 끌리는 까닭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98~100쪽

- 1 (1) ㉠ (2) ㉡ (3) ㉢ 2 ② 3 ④ 4 ㉣ 선택 ㉠
삭제 5 ③ 6 재구성

- 1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과 글을 쓴 목적을 소개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끝’ 부분에서는 설명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2 이 글은 ①문단에서 ‘매운맛이 인기 있는 현상’을 결과로 제시하고, ⑤, ⑥문단에서 그러한 현상의 원인인 ‘매운 음식에 끌리는 까닭’을 소개하는 ‘원인과 결과’의 전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는데, 중심 문장은 문단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고, 뒷받침 문장은 이와 관련된 세부 정보들을 담고 있다. 요약할 때에는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중심 문장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세부 내용이나 반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② 구체적인 개념이나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단어는 그 단어들을 포괄하는 말로 묶어 요약해야 하는데, 이를 ‘일반화’라고 한다.
③ 중심 문장은 문단의 앞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부분에도 나타날 수 있다.
⑤ 중심 문장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설명 대상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들을 연결하여 중심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 4 글을 요약할 때는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은 ‘선택’하고, 반복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들은 ‘삭제’해야 한다.

- 5 <보기>의 해인은 매운 음식의 인기 정도를 알기 위해, 현우는 사람들이 매운 음식에 끌리는 까닭을 친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글을 읽고 요약하고자 한다. 즉 읽기 목적이 서로 달라서 요약하려는 내용이 다른 것이다.
- 6 <보기>와 같이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중심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약하기의 방법을 '재구성'이라고 한다.

적용+성찰 | 응용 문제

본문 102~105쪽

1 ⑤ 2 ④ 3 ③ 4 ② 5 ⑤ 6 ①

- 1 문단별로 중심 문장을 찾은 후 연결하여 요약하는 것은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을 요약할 때 쓰이는 방법이다.
- 2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효자가 아버지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삼년상을 지내던 중 밤마다 호랑이가 와서 효자를 지켜 주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오답 해설

- ① 주요 등장인물은 효자와 호랑이, 해남 사람들이다.
- ②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은 전라남도 진도군과 해남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 ③ 설화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로를 지켜 준 효자와 호랑이' 역시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을 담고 있다.
- ⑤ 꿈을 통해 자신의 위기를 전한 호랑이를 효자가 구하면서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난다.

개념 플러스

설화의 유형에 따른 구성 요소별 특징

	신화	전설	민담
인물	신이나 신적 존재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	평범한 인물
사건	천지 창조, 건국, 민족 형성 등	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음.	교훈과 흥미를 주는 사건
배경	아득한 옛날, 신성한 장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막연한 시간과 장소

- 3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 삼년상을 지내고 삼년상 동안 자신을 지켜 준 호랑이를 구한 효자의 선행과 그로 인해 임금의 표창을 받은 효자의 모습을 통해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4 효자는 처음 호랑이를 봤을 때 두려움을 느꼈지만, 호랑이가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효자가 용맹하고 무예가 뛰어났는지는 제시된 이야기에서 알 수 없다.

- 5 설명하는 글을 요약할 때에는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삭제하고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포괄하는 중심 내용을 선택해야 한다.
- 6 <보기>에는 공정 여행의 뜻이 정리되어 있다. 즉 공정 여행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개념을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107쪽

1 완화 2 ①

- 1 '완화'는 첫 번째 문장과 같이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함.'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두 번째 문장과 같이 '병의 증상이 줄어들거나 누그러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 2 '날카롭게 쪽 뺀 고양이'의 수염, '푸른' 등은 눈으로 보는 감각, 즉 시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10~111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⑤ 05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운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06 ① 07 ④

- 01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사람들이 매운 음식에 끌리는 원인을 과학적 원리와 사회 분위기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② (가)에서 매운맛의 높은 인기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라)에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글의 앞부분에서 매운맛의 인기라는 결과를 먼저 제시한 후, 이어서 매운맛의 정체와 매운맛에 끌리는 까닭을 밝히고 있다.

- 02 이 글은 매운맛의 정체와 매운 음식에 끌리는 까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매운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나)와 (다)를 통해 매운맛은 미각으로 느끼는 '맛'이 아니며 일종의 통증을 알 수 있다.
- ② (나)에서 우리의 혀에 매운맛을 느끼는 맛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고 하였다.
- ④ (다)에서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뜨거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 ⑤ (라)에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엔드르핀을 내보내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03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통증을 유발하여 뇌에서 진통 성분인 엔도르핀이 분비되는데, 엔도르핀은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 (라)에서 이러한 까닭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매운 음식을 찾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다)에서 캡사이신은 내장 기관뿐만 아니라 혀, 눈, 피부의 민감한 부분 등 신체의 여러 부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가)에서 매운 음식의 인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⑤ (마)에서 식품 회사들이 매운 음식을 개발하는 까닭은 매운 음식이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04 (다)에 따르면 캡사이신 자체가 뜨거운 것도 아니고, 매운 음식의 온도가 높아야만 뜨거움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캡사이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온도 감각이 착각을 일으켜 뜨겁지 않은 데도 뜨겁다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05 [서술형] (라)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든다는 점을, (마)는 매운 음식을 즐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어 매운 음식이 인기 있는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가)에서는 매운 음식의 인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06 <보기>의 요약하기의 목적은 ‘매운맛이 맛으로 분류되지 않는 까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인데, 해당 정보는 (나)에 들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된다. (나)는 중심 문장이 마지막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여 요약하면 된다.

07 ㉠는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각 문장의 주요 내용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중심 문장을 만든다. 그리고 ‘혀뿐만 아니라 눈이나 피부의 민감한 부분, 내장 기관의 표면까지도’와 같은 내용은 일반화하여 ‘신체의 여러 부분’이라고 요약해야 한다.

(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본문 112~113쪽

개념 확인

- 1 정보 2 주제 3 ⑤ 4 × 5 조사 보고서
 6 처음 7 ② 8 ○ 9 ④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116~127쪽

- 1 ① 2 ㄱ, ㄴ, ㄷ, ㄹ 3 ① 4 ④ 5 ③ 6 ④
 7 ⑤ 8 ② 9 ③ 10 ⑤ 11 ② 12 ③
 13 ③ 14 ③ 15 ③ 16 ⑤ 17 ⑤ 18 ②, ④
 19 ② 20 ①

1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내용을 쉬운 말로 풀어 쓰면 친구들이 내 글을 흥미롭게 읽겠지?’라는 말에서 현서가 예상 독자로 학급 친구들을 선정하고 이들에 맞추어 쉬운 말로 글을 쓰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④ ‘정보 보안 전문가?~재미있고 보람 있을 것 같아.’에서 화이트 해커, 즉 정보 보안 전문가라는 직업을 소개하기로 정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번 기회에 적성 검사를 하고, 관심 가는 직업을 골라 보아야지.’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 주제로 정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⑤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에서 글쓰기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2 보고서를 쓸 때는 ‘계획하기 →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기 → 보고서 내용 구성하기 → 보고서 완성하기’의 절차에 따른다.

개념 플러스

보고서 쓰기 과정

계획하기	• 주제, 목적, 예상 독자 정하기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기	• 책,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 수집하기 •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료를 선정하고 자료의 신뢰성 판단하기
보고서 내용 구성하기	• 수집한 자료 중 관련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보고서 완성하기	•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고, 쓰기 윤리를 지켜 작성하기 • 도표, 그림,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기 • 평가 기준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 표현, 쓰기 윤리 등을 점검하기

3 보고서의 계획을 세우면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미리 정해 놓을 수는 없다. 조사 과정에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4 글쓰기 계획으로 볼 때, 현서는 정보 보안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자 한다.

5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따라서 재미와 감동은 보고서에 넣을 정보로서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6 '독자가 실천할 수 있는 정보 보안 방법'은 정보 보안 전문가에 대한 직업 정보 조사라는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7 자료를 수집할 때는 독자의 흥미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주제와의 관련성이다. ㉔에서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보안 방법을 물어보았는데 이는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보를 보고서에 쓸 내용으로 선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주제에서 벗어나더라도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 위주로 수집했다는 ㉕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㉔~㉕ 모두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 ② ㉔, ㉕에서는 문헌 자료, ㉔에서는 도표, ㉕에서는 동영상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③ ㉔, ㉕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싣고 있다.
- ④ ㉔~㉕는 다양한 매체로부터 얻은 자료이다.

개념 플러스

자료의 출처 표기

-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경우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야 한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료를 활용하면 표절이 된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이는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자료 수집 단계에서 자료의 출처를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 출처를 다시 찾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놓치지 않고 밝혀 쓰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8 보고서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㉔의 내용 중 '정보 보안 방법'은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자료 선정 시 제외해야 한다.

9 자료 ㉔의 '정보 보안 전문가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료 ㉕의 '정보 보안 전문가에게 필요한 적성'은 비슷한 내용이므로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조사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조사 방법에 함께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서는 조사를 위해 답사나 방문 등을 계획하지 않았으므로 조사 시 필요한 준비물은 따로 없다.

11 보고서 작성 시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보고서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문자만 제시하는 것보다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12 보고서의 개요는 수집한 자료를 보고서의 구성 요소에 맞게 배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집한 자료들 중 비슷한 내용의 자료들은 묶어서 항목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서가 구성한 개요를 살펴보면 현서는 조사 결과를 '직업 특성, 직업 준비, 직업 전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업 특성'에는 하는 일과 평균 연봉에 대한 정보를, '직업 준비'에는 필요한 능력, 직업 윤리, 교육 및 준비 과정에 대한 내용을 묶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오답 해설

- ① '하는 일'은 직업 특성, '필요한 능력'은 직업 준비에 해당한다.
- ② '평균 연봉'은 직업 특성, '직업 윤리'는 직업 준비에 해당한다.
- ④ '평균 연봉'은 직업 특성, '교육 및 준비 과정'은 직업 준비에 해당한다.
- ⑤ '하는 일'은 직업 특성, '정보 보호 산업 전망'은 직업 전망에 해당한다.

13 보고서 구성 중 '조사 결과-직업 전망' 항목에서 인터넷 신문 자료의 정보 보호 산업 인력 현황 도표(막대 그래프)를 활용하여 인력 규모의 변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오답 해설

- ①, ② 그림은 직업 특성 중 평균 연봉과 관련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 ④ 사진은 직업 준비와 관련하여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 및 준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때 활용하고자 하였다.
- ⑤ 도표는 직업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14 이 보고서는 '정보 보안 전문가'라는 직업에 관해 조사한 결과물을 보고하는 '조사 보고서'이다. ③의 대상을 관찰한 결과를 보고하는 글은 '관찰 보고서'이다.

오답 해설

- ① 1~4에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하고 있고, '5. 조사한 후 소감'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 ②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그림, 사진, 도표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 ④ '6. 참고 자료 및 출처'에서 쓰기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참고 자료 및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 ⑤ 조사 결과를 '직업 특성, 직업 준비, 직업 전망'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항목별로 나누어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15 도표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그 관계를 일정한 양식의 그림으로 나타낸 표를 뜻한다. 현서는 '4-(3) 직업 전망'에서 도표를 활용하여 정보 보안 전문가라는 직업의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정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개념 플러스

도표(그래프)

수집한 통계 자료들을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거나 표로 정리하여 보여 주게 되면,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 줄 수는 있지만 가독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을 점, 선 등을 사용한 도표(그래프)로 바뀌어 표현하면 한눈에 알아보기도 좋고, 변화 추세와 경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쉽게 통계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6 '4. 조사 결과-(2) 직업 준비'에 따르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비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습득하여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1) 직업 특성'의 '화이트 해커'라고도 불리는 정보 보안 전문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② '(2) 직업 준비'의 '정보 보안 전문가에게는~수리력·논리력이 필요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③ '(3) 직업 전망'의 '첨단 장비나 서비스를~모두 정보 보안 전문가를 찾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④ '(3) 직업 전망'의 '2020년에~6만 4,831명으로 늘어났다.'와 정보 보호 산업 인력 현황을 담은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17** 보고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보고서의 형식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보고서에는 주제, 목적, 기간, 방법, 결과, 자료 출처 등의 내용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념 플러스

보고서의 특징

정확성	내용과 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여 바르고 확실해야 함.
객관성	내용과 결과가 주관적이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누가 봐도 그러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체계성	내용과 결과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야 함.
명료성	내용과 결과가 뚜렷하고 명명해야 함.
신뢰성	전문가의 견해나 사실 관계가 검증된 자료를 제시해야 함.

- 18** 보고서에서 활용한 자료의 출처는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밝히면 보고서에 활용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 19** 조사한 자료 가운데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것, 신뢰할 만한 것만 선정하여 활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일정한 형식을 갖추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③ 보고서에서는 사진, 도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④ 타인의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⑤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고 명료하게 써야 한다.

- 20**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보고서의 주제, 형식, 예상 독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오답 해설

- ② '보고서 평가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 ③ '보고서 내용 구성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 ⑤ '보고서 완성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 1 ④ 2 ④ 3 ③ 4 ④ 5 ① 6 ⑤ 7 ③

- 1** ○○ 분식과 비슷한 가게에 관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2. 대상 선정 이유'에서 맛집 선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② '1. 맛집 위치'에서 지도를 통해 맛집 위치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3. 자료 수집 방법'에서 인터넷 조사와 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4-② 판매하는 음식 종류'에서 ○○ 분식의 대표 음식과 가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2** '4-④ 사장님 면담 내용'을 통해 ○○ 분식의 대표 음식이 단골손님의 요청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4-① 운영 시간'에서 ○○ 분식의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후 1시~9시까지임을 알 수 있다.
- ② '4-② 판매하는 음식 종류'에서 ○○ 분식은 대표 음식인 매운거꾸로김밥 등 김밥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1. 맛집 위치'의 내용을 통해 ○○ 분식은 한사랑 중학교에서 도보 11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2. 대상 선정 이유'에서 ○○ 분식을 소개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를 '아직 가 본 적 없는 친구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라고 하였다. ○○ 분식이 친구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 3** 방문 후기는 ○○ 분식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조사자들의 맛집 추천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그러나 소개한 후기 내용에 ○○ 분식의 위생에 대한 내용은 없다.

- 4** 방문자 이용 만족도는 가게를 방문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남긴 후기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②, ③ 가게 위치나 판매 음식 종류, 가게 운영 시간은 인터넷 검색이나 사장님과의 면담 조사를 통해 얻기에 적합한 정보이다.
- ⑤ 가게를 열게 된 이유는 사장님과의 면담 조사를 통해 얻기에 적절한 정보이다.

- 5** 비슷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보고서에 나열하여 제시하면 명료성이 떨어지게 되고 독자가 보고서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비슷한 내용을 묶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어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6** '조사 후기'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아쉬웠던 점, 앞으로의 계획, 작성자의 의견 등을 덧붙일 수 있다.

- 7**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읽어 보고 보고서 평가 기준에 따라 글의 장점과 보완할 부분 등을 평가하는 것은 '점검하기' 과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1 ㉠ 수집 ㉡ 구조 2 ㉢ 보호 ㉣ 보완 ㉤ 보고 ㉥ 보안

- 1 '수집'은 '취미나 연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음, 또는 그 물건이나 재료'를 뜻한다. '구조'는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열개'라는 뜻이다.
- 2 ①에는 '위험이나 곤란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피 돌봄.'을 뜻하는 '보호'가 적절하다. ②에는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을 뜻하는 '보완'이 적절하다. ③에는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을 뜻하는 '보고'가 적절하다. ④에는 '안전을 유지함.'을 뜻하는 '보안'이 적절하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36~137쪽

01 ㉣ 02 ① 03 ㉣ 04 ㉣ 05 ② 06 보고
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07 ② 08 ㉣

- 01 (가)의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친구들이 내 글을 흥미롭게 읽겠지?'에서 예상 독자가 반 친구들임을 알 수 있다.
- 02 책이나 잡지는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저자가 작성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은 자료이므로 보고서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 오답 해설**
- ② (나)는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되는 방법에 대한 자료이다.
- ③ (다)에서 '화이트 해커'란 정보 보안 전문가를 일컫는 다른 말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다)에서 '정보 보안 방법'이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일 수는 있지만 보고서 주제에 맞는 내용은 아니므로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⑤ (다)는 사람들이 정보 보안 전문가에 관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답한 내용이므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 03 ㉠의 그래프는 정보 보호 산업 인력 현황의 연도별 변화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를 한눈에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을 정보 보안 관련 직업의 전망이 밝다는 정보와 함께 제시하면 효과적이다.

오답 해설

- ① 이 그래프는 정보 보호 산업 인력이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데, 원그래프로 바꾸면 연도별 변화를 보여 주기 어렵다.
- ② 보고서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사용한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③ ㉠은 정보 보호 산업 인력 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정보 보호 산업의 변천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

- ⑤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가져다 사용할 경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04 (가)~(다)는 조사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쓰는 부분으로 보고서의 '조사 결과' 항목에 해당한다.

- 05 (나)에서 정보 보안 전문가는 실제 해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진로 정보 누리집에 따르면, 정보 보안 전문가의 평균 연봉은 ○만원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의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배우는 것을 비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④ (가)의 '정보 보안 전문가는~더 안전하게 만든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⑤ (다)에서 정보 보안 전문가의 일자리 규모가 커질 전망임을 밝히고 있고, 도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06 [서울형] 그림과 사진을 활용하면 글로 길게 설명해야 하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된다.

개념 플러스

매체 자료의 활용 효과

그림, 사진	- 주제와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면 보고서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음. -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운 정보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음.
도표, 그래프	- 설문 조사 결과, 통계 자료 수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시하여, 정보 간 비교, 변화 추이 등을 파악하기 쉬움.
동영상	- 주제 관련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음. - 보고서에서는 동영상을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동영상 장면 중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을 캡처하여 제시할 수 있음.

- 07 (나)에서는 정보 보안 전문가에게 필요한 능력, 윤리 의식, 교육 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는 '직업 준비'가 적절하다.

- 08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쓰기 윤리를 지키고 글의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01 ③ 02 ④ 03 ① 04 ④ 05 ④ 06 ⑤
 07 ③ 08 ② 09 매운맛은 뜨거움의 일종이다. 10 ②
 11 ③ 12 ② 13 ⑤ 14 ② 15 ⑤ 16 ⑤
 17 ④ 18 ④ 19 음식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20 ③

01 이 글은 설명하는 글(설명문)이다. 설명문은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오답 해설

- ①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② 이야기 글이나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④ 주장하는 글(논설문)에 대한 설명이다.
 ⑤ 기사문에 대한 설명이다.

02 설명문은 ‘처음-중간-끝’의 3단 구조로 구성된다. 글의 주제 소개, 글을 쓴 목적 등을 소개하는 부분은 ‘처음’으로 (가)에 해당한다. ‘중간’ 부분에서는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설명하는데, (나), (다), (라)에서는 매운맛의 정체를, (마), (바)에서는 매운맛이 인기를 끄는 까닭에 대해 밝히고 있다. ‘끝’ 부분에서는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주제와 관련하여 간단한 당부, 전망 등의 내용을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이다.

03 (나)는 매운맛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는 문단 중 하나로, 중심 내용을 요약하면 ‘매운맛은 미각으로 느끼는 맛이 아니다.’가 된다. 맛의 종류가 다섯 가지라는 것은 매운맛의 정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하나의 자료일 뿐이므로 (나)를 적절하게 요약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04 (가)의 중심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며, 나머지 문장은 매운맛의 인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를 요약할 때는 첫 번째 문장을 선택하고 나머지 문장을 삭제해야 한다.

05 현수와 승주가 <보기>와 같이 같은 글을 다르게 요약한 것은 글을 읽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 현상에 주목한 현수는 (가)를 중심으로 요약하였고, 매운맛에 끌리는 과학적인 이유에 주목한 승주는 (마)를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그러나 현수와 승주 모두 매운맛의 유래를 궁금해하고 있지 않다.

06 <보기>에서는 식품 회사에서 매운맛 음식을 개발하는 까닭을 궁금해하고 있다. 이는 매운맛에 끌리는 까닭을 사회 분위기에서 찾고 있는 (바)와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 모험이자 놀이, 도전이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07 엔도르핀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느껴지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뇌에서 내보내는 진통제이다.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캡사이신이다.

08 (라)~(바)에서는 사람들이 매운 음식에 끌리는 까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매운 음식에 끌리는 원인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⑥는 매운맛의 인기에 관한 내용으로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라)~(바)를 요약할 때 넣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09 ㉠에 대한 답은 (라)에 제시되어 있다.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뜨거움을 느끼는데, 온도 감각이 착각을 일으켜 매운맛에 뜨겁다고 반응하고 우리 몸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10 글을 요약하면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오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약하기는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감상을 표현하는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11 전라남도 진도군, 해남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는 제시되어 있지만, 시간은 ‘옛날’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②, ⑤ 아버지의 삼년상을 지내는 효자를 지켜 준 호랑이가 위험에 빠지자 효자가 호랑이를 구해 주었다는 이야기로, 효성과 은혜 갚기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④ 호랑이가 효자의 곁을 지켜 주고, 효자의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 달라고 청하는 등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나타난다.

12 같은 글을 읽고도 글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요약하는 것은 글을 읽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13 (나)는 여행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정 여행에 대한 내용을 전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4 <보기>의 공정 여행이 추구하는 목적은 공정 여행의 의의를 요약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15 (가)는 조사 보고서이고, (나)는 소개 글로 모두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해당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비슷한 내용의 정보는 반복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하나로 통합하여 간결하게 제시해야 독자가 정보를 파악하기 쉽다.

오답 해설

- 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조사 주제 및 형식, 조사 목적과 예상 독자, 글쓰기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 ②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글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 ③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도표, 그림,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되,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④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글을 읽을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야 한다.

16 (가)에서는 전문가의 면담 내용을 자료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면담 내용을 제시한 것은 (나)이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정보 보안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한 조사 보고서이고, (나)는 동네 맛집을 소개하는 글이다. (가)와 (나) 모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 ② (가)는 친구들에게 직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이고, (나)는 동네의 맛집인 ○○ 분식에 아직 가 본 적 없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 분식을 소개하는 글이다.
- ③ (가)에서는 진로 정보 누리집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방문 후기를 활용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지도를 제시하여 맛집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7 (가)는 ‘정보 보안 전문가에 대한 직업 조사 보고서’로 정보 보안 전문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 내용 중에 정보 보안 전문가의 경험담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조사 방법을 통해 책, 잡지,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수집한 자료는 쓰기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
- ③ 정보 보안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글의 형식은 조사 보고서가 적절하다.
- ⑤ 조사 동기 및 목적으로 볼 때 글쓴이가 예상 독자인 친구들도 정보 보안 전문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 제시된 자료는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므로 ‘4-(2) 직업 준비’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19 ○○ 분식에서 판매하는 음식 사진을 통해 음식점에 관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 분식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20 사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 분식의 대표 음식을 개발하게 된 동기를 알 수 있다. 또한 ○○ 분식 사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전달하는 내용이라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더할 수 있다. 그러나 면담 내용으로 ○○ 분식의 음식 판매 전략을 알 수는 없다.

서술·논술형 문제

본문 152~153쪽

01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요약한다.

02 ㉠ 매운맛은 뜨거움의 감각이다. ㉡ 매운 음식을 먹으면 진통 성분인 엔도르핀이 나와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든다.

03 (가)와 (나)는 자료를 조사할 때 인터넷을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는 책과 잡지를 활용하고 (나)는 면담을 활용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나)와 같이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면 면담자로부터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04 마지막 답변인 ‘휴대 전화 응용 프로그램을 갱신하고’라는 내용은 (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내용은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05 ㉠은 ‘맛집 위치’, ㉡은 ‘판매하는 음식’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 ㉡과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가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평가 요소 요약하기 방법 이해하기

01 글의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나 글을 읽는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은 매운맛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결과’를 먼저 제시한 후, 이어서 매운 음식에 끌리는 까닭인 ‘원인’을 밝히는 인과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인과의 방법에 따라 요약해야 한다고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10점
인과의 방법에 따라 요약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문단 중심 내용 요약하기

02 ㉠와 ㉡에는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을 구분하고, 요약하기의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매운맛의 정체’는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매운맛의 정체를 질문하고 답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인 두 번째 문장 ‘매운맛은 피부의 온도 감각을 통해 느껴지는 ‘뜨거움’의 일종이다.’를 중심 내용으로 선택하면 된다. ‘매운맛에 끌리는 까닭’은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엔도르핀은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와 ‘매운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가 풀리거나 기분이 좋아졌다면 엔도르핀 덕분인 셈이다.’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단의 중심 문장을 재구성하면 된다.

채점 기준	배점
㉠과 ㉡ 두 가지를 모두 바르게 요약한 경우	10점
㉠과 ㉡ 중 한 가지만 맞게 요약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자료 수집 방법 파악하기

- 03** 보고서를 쓰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는 실험, 관찰, 조사 등이 있다. 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방법을 적어야 하는데, (가)와 (나)에 제시되어 있는 조사 방법을 보면 (가)와 (나) 모두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두 보고서의 차이점은 (가)는 책과 잡지를 활용한 문헌 조사를 한 반면 (나)는 면담을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나)와 같이 면담 자료를 보고서에 활용하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작성하고, '면담'의 장점을 두 가지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10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작성하고, '면담'의 장점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또는 '면담'의 장점만 두 가지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7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작성한 경우 또는 '면담'의 장점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자료 활용 방법 파악하기

- 04** 보고서를 쓸 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면 보고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집한 자료를 모두 활용하기보다는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에 어울리는 자료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된 자료에는 (가)의 주제나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즉 마지막 답변의 '휴대 전화의 응용 프로그램을 갱신하고'는 일반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정보 보안 방법이지만, '정보 보안 전문가'라는 직업을 소개하고자 하는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자료는 보고서에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채점 기준	배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내용과 그 까닭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10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나 그 까닭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자료 활용 방법 적용하기

- 05** ㉠은 학교에서 ○○ 분식까지 가는 길과 소요 시간을 나타내는 지도로, '맛집 위치'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 ○○ 분식 대표 음식의 사진과 가격이 담긴 차림표로, '판매하는 음식'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같이 그림, 사진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가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 ㉡을 추가할 위치와 선택한 자료의 활용 효과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10점
㉠, ㉡을 추가할 위치나 선택한 자료의 활용 효과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3 국어의 품사, 존중의 언어

(1) 우리말 품사

본문 162쪽

개념 확인

- 1 품사 2 나, 더, 리 3 (1) 형용사 (2) 명사 (3) 수사
(4) 조사 4 ③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166~178쪽

- 1 ① 2 ① 3 ② 4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5 ① 6 ③ 7 ④ 8 ② 9 ④ 10 ② 11 ③
12 ③ 13 ② 14 ⑤ 15 ① 16 ① 17 ②
18 ③ 19 ② 20 ⑤ 21 ④ 22 이미 다른 사람이
포함되고 거기에 '너'가 더해짐을 뜻한다. 23 ③ 24 ②
25 ②

- 1 '걷다'는 '걸고, 걷니, 걷자' 등으로 형태가 변하고, '알다'는 '알고, 알자, 알아' 등으로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 2 '정말'은 뒤에 오는 말인 '좋아해'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 3 '김밥'은 '김 위에 밥을 펴 놓고 여러 가지 반찬으로 소를 박아 돌돌 말아 싸서 썰어 먹는 음식.'을 뜻하는 말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오답 해설**
① '푸르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③ '이미'는 뒤에 오는 용언인 '떠나 버렸다'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부사이다.
④ '현'은 뒤에 오는 체언 '웃'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이다.
⑤ '만큼'은 체언에 붙어서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의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다.
- 4 **[서술형]** '꽃', '한복', '연필', '자동차'는 모두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 명사에 해당한다.
- 5 '나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고, '배려', '사랑', '평화', '행복'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6 '같이'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가 아니라, 뒤에 오는 용언 '한다'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이다.
- 7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로,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 8 '저기'는 장소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저 집에 사셔.'에서 '저 집'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로부터 멀리 위치해 있으므로 '저기'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9 '여섯'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고,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 10 '가게'는 '작은 규모로 물건을 파는 집.'을 뜻하는 말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둘'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③ '저기'는 장소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 또는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 쓰는 감탄사이다.
④, ⑤ '손님'과 '책가방'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11 체언은 문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인 명사, 대명사, 수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인다.

오답 해설

- ①, ②는 용언, ④는 수식언, ⑤는 독립언에 대한 설명이다.

- 12 '우리'는 사람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로 체언에 속한다. 체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②, ④, ⑤ '났구나', '웃으면', '모였다', '더운'은 각각 기본형이 '났다', '웃다', '모이다', '덥다'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용언에 해당한다.

- 13 '신나다'는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 기분이 매우 좋아 지다.'를 뜻하는 동사이다. '좋다', '즐겁다', '푸르다', '눈부시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14 '너그럽자'는 기본형이 '너그럽다'로,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형 표현으로 쓰일 수 없다.

- 15 '곱구나'는 기본형 '곱다'를 활용한 표현으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형용사는 동사와 함께 용언에 해당하는 품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고 서술어 역할을 한다.

오답 해설

- ②는 동사, ③은 조사, ④는 불변어, ⑤는 독립언에 대한 설명이다.

- 16 '모든'은 뒤에 오는 체언 '국민'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 ②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품사는 부사이다.
③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는 명사이다.
④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는 동사이다.
⑤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는 형용사이다.

17 '어떤'은 '어떤 사람, 어떤 생각, 어떤 얼굴' 등과 같이 체언 앞에 놓여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다시', '활짝', '자주', '오래'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18 '설마'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며, '그런'은 뒤에 오는 체언 '일'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 ① '매우'는 부사 '많이'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많이'는 용언 '마셨다(마시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② '잘'은 용언 '부르는구나(부르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④ '무척'은 용언 '재미있었다(재미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⑤ '일곱'은 뒤에 오는 체언 '명'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19 '작은'은 형용사 '작다'의 활용형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용언에 해당한다. 수식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개념 플러스

관형사와 관형사형

공통점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줌.
차이점	관형사는 수식언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고, 관형사형은 용언으로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가 변한 활용형이다.

㉠ 나는 오늘 새 신발을 신었다. → '새'(관형사)

나는 오늘 새로운 신발을 신었다. → '새로운'('새롭다'의 활용형, 형용사)

20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다.'에서 '그'는 뒤에 오는 체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21 '개와 고양이'에 쓰인 '와'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이고, '친구와 함께'에 쓰인 '와'는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22 [서술형] '도'는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로,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것에 더해 너 역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낸다.

23 '그마저'에서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24 '지수야'는 명사 '지수'에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조사인 '야'가 결합한 형태로 감탄사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⑤ '여보세요'는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여봐요'를 조금 높여 이를 때도 '여보세요'를 쓸 수 있다.

25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는 관계언인 조사이다.

적용+성찰 | 응용 문제

본문 179~181쪽

- 1 ② 2 ④ 3 온, 반짝반짝 4 ② 5 ㉠ 조사
㉡ 부사 6 ③ 7 ①

1 '달빛', '농촌', '밤하늘'은 모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2 '속삭여'의 기본형은 '속삭이다'이다. '속삭인다'는 어떤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 '-ㄴ-'이 결합된 활용형이다. (속삭이-+-ㄴ-+-다)

3 '온'은 '전부의, 또는 모두의.'라는 뜻을 지닌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 '세상'을 꾸며 준다. '반짝반짝'은 '작은 빛이 잠깐 잇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로 뒤에 오는 용언 '빛났다(빛나다)'를 꾸며 준다.

4 '저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에서 '저'는 말하는 이가 윗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이다. 나머지 '저'는 모두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5 ㉠은 '당신'이라는 체언(대명사)에 붙어 '앞말이 보이는 어떤 전형적인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은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라는 뜻을 지니고 뒤에 오는 용언인 '살아서(살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어 쓰고, 부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6 ㉠과 ㉡이 전달하는 내용은 같지만,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품사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오답 해설

- ① ㉠의 '바꾸겠습니다(바꾸다)'는 동사이지만, ㉡의 '학급', '사물함', '교체'는 모두 명사로 ㉠에는 동사가 쓰이지 않았다.
- ②, ⑤ ㉠과 ㉡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 ㉠에 비해 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핵심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다.
- ④ ㉠과 ㉡이 전달하는 정보는 동일하므로 ㉠보다 ㉡에 담긴 정보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7 제시된 글은 야구 경기 장면에 대한 묘사로, '던진(던지다)', '친(치다)', '달려서(달리다)', '도착했다(도착하다)'는 모두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183쪽

- 1 ② 2 ⑤

1 '대변(代辯)하다'와 '대리(代理)하다'에 사용된 한자 '대(代)'는 '대신하다'라는 뜻이다.

2 '일곱명'은 '일곱 명'으로 띄어 써야 한다. '명'은 '사람을 세는

단위'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고, '일곱'은 체언인 '명'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므로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써야 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86~187쪽

- 01 ③ 02 ② 03 ③ 04 ③ 05 ③ 06 ⑤
 07 '헌'은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멋진'은 형용사 '멋지다'의 활용형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08 ④ 09 ③ 10 ②
 11 ④ 12 ③과 ⑥는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13 ④

- 01 품사는 단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분류한 갈래이다.

오답 해설

- ① 분리하여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는 단어이다.
 ② 문장에서 끊어 읽기나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는 어절이다.
 ④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의 집합은 어휘이다.
 ⑤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문장이다.

- 02 '어머'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깜짝 놀라거나 끔찍한 느낌이 들었을 때 내는 소리.'를 뜻하는 감탄사로,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이다.

- 03 '열'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열 명'처럼 '열'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줄 때는 관형사이지만, '열에 아홉은 모른다.'에서 '열'은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수사이다.

오답 해설

- ①, ⑤ '여기'와 '우리'는 대명사이다.
 ②, ④ '시계'와 '개나리꽃'은 명사이다.

- 04 '신나게'의 기본형은 '신나다'이다. '신난다'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ㄴ-'이 결합한 활용형이다.

- 05 '행복하자'의 기본형인 '행복하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명령형이나 청유형 표현을 쓸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행복하자'라고 요청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읽자'는 기본형이 '읽다'로 동사이다. '읽자'는 청유형 표현이다.
 ② '먹어라'는 기본형이 '먹다'로, 동사이다. '먹어라'는 명령형 표현이다.
 ④ '달린다'는 기본형이 '달리다'로, 동사이다. '달린다'는 현재형 표현이다.
 ⑤ '흐뭇하다'는 기본형이 '흐뭇하다'로 형용사이다.

- 06 ㉠에 쓰인 단어의 품사를 분석하면, '모든'은 관형사, '아이'는 명사, '가'는 조사, '활짝'은 부사, '웃었다(웃다)'는 동사이다.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인 대명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와 ㉢의 서술어는 '웃었다(웃다)'로 동사이다.
 ②, ③, ④ ㉣에는 '모든'과 '활짝'이라는 수식언이 사용되었다. '모든'은 '아이'를 꾸며 주어 '아이'의 의미를 한정하고, '활짝'은 '웃었다'를 꾸며 주어 '웃었다'의 의미를 한정한다. ㉣는 이렇게 '모든'과 '활짝'이라는 수식언을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07 [서술형] '헌'과 '멋진'은 둘 다 '웃'이라는 체언을 꾸며 주고 있지만, '헌'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로 관형사이고, '멋진'은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로 형용사 '멋지다'의 활용형이다.

- 08 '가', '와', '에'는 체언에 붙어 쓰이는 조사이다. 조사는 다른 품사의 단어와 달리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단어에 결합하여 쓰이는 특성이 있다.

오답 해설

- ① 조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단, 서술격 조사 '이다'만 형태가 변한다.
 ②, ③ 조사는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기능을 한다.
 ⑤ 조사는 문장에 쓰인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에 속한다.

- 09 '석진아'는 명사 '석진'과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조사 '아'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로 감탄사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여보'는 어른이, 가까이 있는 자기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을 부를 때, 또는 부부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부를 때 쓰는 감탄사이다. <보기>에서는 부부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부르는 감탄사로 쓰였다.

- 10 ㉠의 '그'는 뒤에 오는 명사 '시험'을 꾸며 주는 말이다. 체언을 꾸며 주며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관형사이다.

- 11 '하얀'은 기본형 '하얗다'의 활용형으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12 [서술형] ㉠은 뒤에 오는 체언 '별들'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는 뒤에 오는 용언 '멀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따라서 ㉠와 ㉡는 모두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13 ㉢에는 명사, 조사, 관형사, 동사의 품사가 사용된 반면, ㉣에는 명사만 사용되었다. ㉢을 ㉣과 같이 명사로 바꾸면 핵심 정보를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에는 명사만 사용되었고, 동사, 수식언(관형사, 부사) 등 다른 품사의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와 ㉣ 모두 감탄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조사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생각했을 때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존중하는 말하기

개념 확인 **꼭꼭**

본문 188~189쪽

- 1 ① 2 (1) ○ (2) ○ (3) × 3 차별 4 (1) ㉠
(2) ㉡ (3) ㉢ (4) ㉣ 5 ① 6 (1) ○ (2) ×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192~197쪽

- 1 ③ 2 ⑤ 3 ⑤ 4 ⑤ 5 ⑤ 6 ④ 7 ⑤

- 1 ‘살색 색연필’은 인종 차별, ‘장애우’는 장애인 차별, ‘유모차’는 성차별에 해당하는 차별적 표현이다.
- 2 ‘결정 장애’는 ‘결정’에 ‘장애’라는 단어를 붙여 ‘장애’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장애’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 ‘결정 곤란’, ‘결정 느낌보’ 등으로 바꿀 수 있다.
- 3 ‘병어리장갑’, ‘얇은뱅이책상’, ‘외발자전거’는 ‘장갑’, ‘책상’, ‘자전거’에 ‘병어리’, ‘얇은뱅이’, ‘외발’이라는 장애인을 가리키는 표현을 결합하여 만든 단어로, 대상의 속성을 장애인에 비유한 장애인 차별 표현에 해당한다.
- 4 이 만화는 유명 연예인이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해 받는 고통과 상처를 다루고 있다.
- 5 댓글을 쓸 때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의견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
- 6 ㉡는 언어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은 언어폭력 중 욕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고 있다.
- 7 ㉡에서는 언어폭력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며 마음에 상처를 남겨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였다. ㉠에서는 욕을 많이 들은 피해자의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피해자의 성격이 거칠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는 내용은 ㉡와 ㉠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에서 ‘욕을 많이 들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나치게 분비되어 성격이 거칠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에서 ‘욕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많이 듣는 사람 양쪽 다 뇌에 손상을 입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④ ㉡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아물 수 있지만, 언어폭력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피해자는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다.’고 하였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198~201쪽

- 1 ② 2 ② 3 ⑤ 4 ③ 5 ⑤

- 1 비판하기는 대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비난하기’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 2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은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댓글, 사회 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 내용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도 높다.
- 4 현성이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 오지 못하자, ‘민재’는 어떤 사정으로 만들지 못한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현성이의 잘못을 비난하며 짜증을 내고 있다.
- 5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며 위로하는 댓글을 달 수 있고, 상대방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는 댓글을 달 수 있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203쪽

- 1 ㉠ 비난, ㉡ 공감 2 ④

- 1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비난’이고,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 ‘공감’이다.
- 2 자신이 친구의 글에 칭찬 댓글을 달았더니 친구도 내 글에 추천과 칭찬 댓글을 달아 준 상황이다. 따라서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면 남도 자기에 대해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한다는 뜻의 속담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와 관련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이다.
- ②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깊은 산에 있는 호랑이조차도 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찾아온다는 뜻으로,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에 없다고 남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 ⑤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01 ⑤ 02 ③ 03 (나)에서는 특정인을 비웃고 깎아내릴 목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댓글을 읽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비난하는 댓글 대신 칭찬하는 댓글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04 ③ 05 ③ 06 ④ 07 대화할 때는 대화 내용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서 말해야 해.

01 (가)에는 인종, 장애,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공평하지 않게 대우하는 차별적 표현이 나타나 있고, (나)에는 공개적으로 류초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말풍선 속 대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류초희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가)의 차별적 표현이나 (나)의 사이버 언어폭력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모욕감이나 두려움 등을 주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② (나)에 나타난 사이버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 ③ (가), (나)에 겁을 주며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말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차별적 표현은 (가)에만 나타나 있고, (나)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02 (가)에서는 좋은 의도로 쓴 말이라도 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는 예로 '장애우'를 들고 있다. '장애우'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친구처럼 도와줘야 하는 의존적 존재로 보는 인식이 담겨 있다.

03 [서술형] (나)에 제시된 댓글은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의도를 담은 악성 댓글이다. 이런 댓글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상처를 남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쓰는 댓글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생각해 보면서 비난하는 댓글 대신 칭찬하는 댓글을 달도록 노력해야 한다.

04 제시된 글에서는 학교 폭력 중 언어폭력이 다른 폭력보다 피해자에게 더 타격이 큰데, 그 이유가 피해자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 피해자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의 발생 비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학교 폭력 중 언어폭력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였다.
- ④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그와 달리 언어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마음에 남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다고 하였다.

05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는 것은 언어폭력의 유형 중 조롱하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욕하기는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 ② 비난하기는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들어 나무라며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
- ④ 차별하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로 구별하여 공평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다.
- ⑤ 협박하기는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06 '민재'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 오지 못한 '현성'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성'의 잘못에 대해 짜증을 내며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다솜'은 '현성'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현성'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정아'에게 말하고 있다.
- ② '현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 ③ 이 대화는 '현성'이 발표 자료를 만들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하는 학생은 없다.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까닭은 '민재'와 '정아'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정아'는 아직도 발표 자료를 못 만들었냐고 말하며 '현성'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다.

07 [서술형] '정아'는 '현성'에게 말하면서 '현성'을 쳐다보지 않고 휴대 전화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 01 ② 02 ③ 03 ① 04 ⑤ 05 ⑤ 06 ⑤
- 07 ㉞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의 역할을 하는 체언(수사)이고, ㉝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수식언(관형사)이다.
- 08 ⑤ 09 ② 10 (나)의 '작다'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의 표현으로 쓰일 수 없는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11 ⑤
- 12 ⑤ 13 ③ 14 ① 15 ② 16 ② 17 ③
- 18 ④ 19 ③ 20 ④ 21 ③ 22 ⑤ 23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서술격 조사로 단어 간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24 ③ 25 '하얀'과 '저'는 형태의 변화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얀'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형용사이고, '저'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관형사예요. 26 ⑤ 27 ② 28 ③
- 29 ④ 30 ⑤ 31 ② 32 ① 33 민재와 정아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34 ①

01 국어의 품사는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의 다섯 종류로 분류된다.

오답 해설

- ① 국어의 품사는 의미를 기준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아홉 개로 분류된다.
- ③ 수식언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은 체언이다.
- ④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는 체언에 해당한다.
- ⑤ 문장에서 쓰일 때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는 수식언이다.

02 ‘손님’, ‘가게’는 명사, ‘둘’은 수사, ‘저것’은 대명사, ‘모든’은 관형사, ‘엄청’은 부사로, 이들은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이에 비해 ‘좋다’, ‘예쁘다’, ‘파랗다’는 형용사, ‘보다’, ‘오다’, ‘먹다’는 동사로, 이들은 모두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03 ‘마음’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오답 해설

- ② ‘참’은 뒤에 오는 ‘넓은’이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 ③ ‘넓은’의 기본형은 ‘넓다’로 형용사이고, ‘지냈다’의 기본형은 ‘지나다’로 동사이다. 둘 다 활용을 하는 용언에 속한다.
- ④ ‘그’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⑤ ‘가’와 ‘을’은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04 제시된 단어들은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오답 해설

- ① 명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 ②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에 해당한다.
- ③ 수와 관련된 단어들은 수사이다.
- ④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한다.

05 ‘무슨’은 뒤에 오는 명사 ‘꽃’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 ①, ②, ④ ‘저기’, ‘그것’, ‘이것’은 사물이나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이다.
- ③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이다.

06 ‘숨사탕’, ‘탕수육’, ‘교가’, ‘비상구’는 모두 명사이고, ‘구십’은 90이라는 수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단, ‘구십’이 ‘구십 개’와 같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줄 때는 관형사이다.

07 [서술형] ㉠에서 ‘첫째’는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순위인 사람’을 뜻하는 명사로,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는 체언이다. ㉡에서 ‘첫째’는 뒤에 오는 명사 ‘주’를 꾸며 주는 관형사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08 ‘즐거운’의 기본형은 ‘즐겁다’이다.

오답 해설

‘모였다’의 기본형은 ‘모이다’, ‘신나게’의 기본형은 ‘신나다’, ‘놀았다’의 기본형은 ‘놀다’, ‘널자’의 기본형은 ‘널다’이다.

09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가변어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해당한다. 또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가변어이면서 형용사가 아닌 것은 ‘바꾸어’이다. ‘바꾸어’는 기본형 ‘바꾸다’의 활용형으로 동사이다.

10 [서술형] ‘읽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작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움직임과 관련된 명령형이나 청유형 표현으로 쓰일 수 없다.

11 ㉠에는 ‘아이’라는 명사(체언)를 꾸며 주는 관형사가 들어가야 하고, ㉡에는 ‘웃었다(웃다)’라는 동사(용언)를 꾸며 주는 부사가 들어가야 한다. ㉢에서 ‘자주’는 부사이므로 ㉠에, ‘어떤’은 관형사이므로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2 ‘엄청’은 ‘많이’라는 부사를 꾸며 주고 있으며, ‘많이’는 ‘있네(있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고 있다. ‘설마’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부사는 주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준다.
- ③ 부사는 용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사나 명사, 관형사를 꾸며 주기도 한다. 또한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경우도 있다.
- ④ 부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13 ‘오래된’은 ‘오래되다’의 활용형으로 ‘시간이 지나간 동안이 길다.’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이고, 용언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그’, ‘현’, ‘온갖’은 관형사, ‘실컷’은 부사이며, 모두 수식언이다.

14 조사는 다른 말 뒤에 붙어서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이다. ㉠의 ‘우리 함께 저기 좀 가 보자.’에서 ‘우리’는 대명사, ‘함께’와 ‘좀’은 부사, ‘저기’는 대명사, ‘가(가다)’와 ‘보자(보다)’는 동사로, 조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15 ‘은우도’에 쓰인 조사 ‘도’는 이미 다른 사람이 포함되고 거기에 ‘은우’가 더해진다는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로 ㉠의 예에 해당한다. ‘도’와 같이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한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현서’가 ‘좋아해’의 주어임을, ‘를’은 ‘은우’가 ‘좋아해’의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를’은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로 ㉠의 예에 해당한다.
- ③ ‘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현서’로 한정한다는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로, ㉠의 예에 해당한다.
- ④ ‘부터’는 ‘은우’가 일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로, ㉠의 예에 해당한다.
- ⑤ ‘중학생이야’에 쓰인 조사 ‘이야’는 조사 ‘이다’가 활용한 형태로, ㉠의 예에 해당한다.

격조사의 종류

주격 조사	앞말이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며 '이/가', '께서'가 있다. ㉠ 친구가 달린다.
서술격 조사	앞말이 문장의 서술어임을 나타내며 '이다'가 있다. ㉡ 이것은 가방이다.
목적격 조사	앞말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나타내며 '을/를'이 있다. ㉢ 친구가 가방을 들었다.
보격 조사	앞말이 문장의 보어임을 나타내며 '이/가'가 있다. ㉣ 그는 학생이 아니다.
관형격 조사	앞말이 문장의 관형어임을 나타내며 '의'가 있다. ㉤ 나는 친구의 가방을 잡았다.
부사격 조사	앞말이 문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며 '에게', '에서' 등이 있다. ㉥ 친구는 나에게 연필을 주었다.
호격 조사	앞말이 문장의 독립어임을 나타내며 '아/야' 등이 있다. ㉦ 친구야,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16 '어머나', '여보', '아니'는 기능상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이면서 의미상 말하는 사람의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에 해당한다.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것은 체언이다.

17 '우리는 모두 웃었다.'에 쓰인 '모두'는 뒤에 오는 용언 '웃었다(웃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모두가 노력하면 우리가 우승할 것이다.'에 쓰인 '모두'는 뒤에 조사 '가'가 붙어 '노력하면(노력하다)'의 주어 기능을 하고 있는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①은 관형사, ②는 부사, ③은 수사, ④는 조사로 모두 두 단어의 품사가 같다.

18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주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는 것은 대명사이다. '어느'는 뒤에 오는 체언 '틈'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19 '부산하게'는 '급하게 서두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어수선하다.'라는 뜻인 '부산하다'가 활용한 것으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깨끗이'는 뒤에 오는 용언 '치웠다(치우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 해설

- ① '은'은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라는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고, '과'는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② '운동장'과 '노을'은 모두 명사이다.
④ '아득히'는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희미하고 매우 멀게'라는 뜻으로 뒤에 오는 용언 '들리는(들리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설마'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들리는(들리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좋다'는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이지만, '좋아하다'는 '특정한 운동이나 놀이, 행동 따위를 즐겁게 하거나 하고 싶어 하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20 '실력뿐이다'에서 '뿐'은 체언 '실력'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다.

오답 해설

- ① '대로'는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라는 뜻의 의존 명사로 관형사형 뒤에 쓰였다.
② '만'은 시간의 경과나 횟수를 나타낼 때 쓰는 의존 명사이다.
③ '나보다'에서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 앞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⑤ '같은'은 형용사 '같다'의 활용형이다.

21 ㉡의 '여러'는 체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며, ㉣의 '빨리'는 용언 '달렸다(달리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의 '우리는 이 집에 오래 살았다.'에는 대명사, 조사, 관형사, 명사, 부사, 동사가 쓰였다.

오답 해설

- ① 부사 '매우'가 쓰였으나 관형사가 쓰이지 않았다.
② 부사 '같이'가 쓰였으나 관형사가 쓰이지 않았다.
④ 관형사 '새'가 쓰였으나 부사가 쓰이지 않았다.
⑤ 부사 '반짝반짝'과 '정말'이 쓰였으나 관형사가 쓰이지 않았다.

22 ㄱ에서 부사 '바로'는 뒤에 오는 체언 '이것'을 꾸며 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맑으려고'는 '맑다'라는 형용사에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으려고'가 붙은 활용형이다. ㄱ이 비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형용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만'은 다른 것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조사로 '그 사람만'은 다른 사람은 제외하고 '그 사람'만 한정하는 뜻을 더해 주고 있다. 따라서 ㄴ으로 보아, 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군데'는 '날날의 곳을 세는 단위'라는 뜻의 의존 명사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두 군데'처럼 다른 말과 결합해서 써야 한다. 따라서 ㄴ으로 보아,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아름다운'은 '아름답다'가 관형사형으로 활용한 형태이다. 따라서 ㄴ로 보아, 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활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서술형] '이고'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한 것이다. 조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는 형태가 변한다.

24 ㉠의 '나'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오답 해설

- ① '하나'는 수사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인다.
② '잠들면'은 기본형 '잠들다'의 활용형으로,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④ '마음'은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⑤ '처럼'은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25 [서술형] '하얀'은 기본형 '하얗다'의 활용형으로 형태가 변하는 용언이며,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저'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26 '놀랍습니다'는 기본형 '놀랍다'의 활용형으로, '감동을 일으킬 만큼 훌륭하거나 굉장하다.'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④ '피하지', '직진합니다', '파고드네요', '제쳤습니다'의 기본형은 각각 '피하다', '직진하다', '파고들다', '제치다'로, 모두 동사이다.

- 27 (가)는 악플(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여 주고 있다. 특징인을 비웃고 깎아내릴 목적으로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차별적 표현이 아니라 악성 댓글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③, ④ (나)는 언어폭력은 신체적 폭력과 달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⑤ (가)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나)는 학교 폭력 중 언어폭력을 다루고 있다.

- 28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댓글을 달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29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한다는 뜻을 지닌 속담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오답 해설

①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이다.

②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마음속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⑤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 30 '어린애'는 '어린이'의 준말로 차별적 표현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살색'은 인종 차별에 해당하는 차별적 표현이다.

② '유모차'는 성차별에 해당하는 차별적 표현이다.

③, ④ '장애우'와 '결정 장애'는 장애인 차별을 담고 있는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

- 31 비난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결점을 들어 나무라면서 나쁘게 말하는 행위를 뜻한다.

오답 해설

①은 조롱, ③은 욕, ④는 차별, ⑤는 협박에 대한 설명이다.

- 32 '민재'와 '정아'는 '현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현성'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없이 '현성'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성'이 화를 내게 되는 등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33 [서술형] '민재'는 '현성'이 발표 자료를 만들어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짜증나는 감정을 내세우며 '현성'을 비난하고 있다. '정아'는 아직도 발표 자료를 못 만들었냐며 '현성'을 무시하면서 '현성'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

- 34 (나)는 (가)의 내용 중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단어만 골라내고, (가)와 달리 문구를 명사로 끝맺어 핵심 정보를 짧고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다.

서술·논술형 문제

본문 220~221쪽

- 01 ㉠ 불변어(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 독립언, ㉢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

- 02 '이것'은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므로 (나)에 들어가야 하고, '희망'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가)에 들어가야 한다.

- 03 ㉠은 형태가 변하지 않고 용언을 꾸며 주므로 부사이고, ㉡은 형태가 변하고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 04 '가'는 '영희'와 '웃자(웃다)' 간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도'는 '영희'에 더해 '철수'도 웃고 있다는 특별한 뜻을 더하고 있다.

- 05 ㉠에는 '그가 열심히 공부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주어의 기능을 하며, '그'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에는 '그 책은 재미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뒤에 오는 말인 체언을 꾸며 주며, '그'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다.

- 06 '조용해라', '착하자'는 활용이 잘못된 표현이다. 왜냐하면 두 단어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움직임과 관련된 청유형이나 명령형 표현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 07 ㉠에서 '살색'은 인종에 따라 피부색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피부색만 살색이라고 말하는 차별적 표현이다. ㉡에는 올바른 표현으로 '살구색'이나 '연분홍색'이 들어갈 수 있다.

- 08 피해자는 뇌에 손상을 입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나치게 분비되어 성격이 거칠어질 수 있다.

- 09 이 만화에 제시된 사이버 언어폭력은 공개적으로 특징인을 헐뜯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특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

- 10 이 만화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하지 않은 친구는 '민재'와 '정아'이다. 왜냐하면 '민재'는 '현성'의 상황이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성'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으며, '정아'는 '현성'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현성'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요소 품사의 분류 기준 이해하기

- 01** ‘와’는 ‘우야’의 준말로 감탄사이다. 감탄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불변어이고,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독립언이며, 의미상으로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채점 기준	배점
㉠, ㉡, ㉢ 세 가지를 모두 제시한 경우	10점
㉠, ㉡, ㉢ 중 두 가지만 제시한 경우	7점
㉠, ㉡, ㉢ 중 한 가지만 제시한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명사와 대명사 구분하기

- 02** (가)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들이고, (나)는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들이다. ‘이것’은 대명사이고, ‘희망’은 명사이다.

채점 기준	배점
‘이것’과 ‘희망’이 들어가야 하는 곳의 기호와 그 까닭을 모두 맞게 쓴 경우	10점
‘이것’과 ‘희망’이 들어가야 하는 곳의 기호와 그 까닭을 둘 중 하나만 맞게 쓴 경우	5점
‘이것’과 ‘희망’이 들어가야 하는 곳의 기호만 맞게 쓰고 그 까닭을 맞게 쓰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용언과 수식언 구분하기

- 03** ㉠과 ㉡은 둘 다 ‘빛난다(빛나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문장에서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둘의 품사를 구별해야 한다. ㉠은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용언을 꾸며 주므로 부사이고, ㉡은 ‘밝다’의 형태가 변한 활용형으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의 품사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맞게 쓴 경우	10점
㉠과 ㉡의 품사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둘 중 하나만 맞게 쓴 경우	5점
㉠과 ㉡의 품사만 맞게 쓰고 그 까닭을 맞게 쓰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조사의 개념과 종류 이해하기

- 04** <보기>의 문장에서 조사는 ‘가’와 ‘도’이다. ‘영희가’의 ‘가’는 ‘영희’가 ‘웃자’의 주어로 ‘웃자’와 문법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철수도’의 ‘도’는 ‘영희’에 대해서 ‘철수’도 웃고 있다는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다.

채점 기준

배점

조사 두 가지를 정확히 찾고, 두 조사의 특성을 맞게 쓴 경우	10점
조사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정확히 찾고, 그 한 가지의 특성을 맞게 쓴 경우	5점
조사 두 가지는 맞게 찾았으나, 두 조사의 특성을 맞게 쓰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단어의 문장에서의 쓰임 이해하기

- 05** 제시된 국어사전의 내용을 보면, ‘그’라는 하나의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품사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대명사로 쓰일 때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고 ‘그’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그’가 관형사로 쓰일 때는 문장에서 뒤에 오는 말(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의 예문과 예문을 근거로 품사의 특성의 차이를 맞게 쓴 경우	10점
㉠과 ㉡의 예문을 맞게 썼으나, 예문을 근거로 품사의 특성의 차이를 맞게 쓰지 못한 경우	5점
㉠과 ㉡의 예문 중 하나만 맞게 쓰고, 예문을 근거로 품사의 특성의 차이를 맞게 쓰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기

- 06** ‘놀아라(놀다)’와 ‘다해라(다하다)’는 동사로 명령형이나 청유형 표현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조용해라(조용하다)’와 ‘착하자(착하다)’는 형용사로 명령형이나 청유형 표현을 쓰는 것이 어색하다.

채점 기준

배점

‘조용해라’와 ‘착하자’를 모두 찾고, 활용이 잘못된 까닭을 맞게 쓴 경우	10점
‘조용해라’와 ‘착하자’ 중 하나만 찾고, 활용이 잘못된 까닭을 맞게 쓴 경우	7점
‘조용해라’와 ‘착하자’만 모두 찾고, 활용이 잘못된 까닭을 맞게 쓰지 못한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차별적 표현 이해하기

- 07** 인종에 따라 피부색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피부색만 ‘살색’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 살색과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인종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살색’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살구색’이나 ‘연분홍색’으로 바꾸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살색'을 찾아 쓰고, 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는 까닭을 맞게 썼으며,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어 쓴 경우	10점
'살색'을 찾아 쓰고, 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는 까닭도 맞게 썼으나,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어 쓰지 못한 경우	7점
'살색'을 찾아 쓰고,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어 썼으나, 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는 까닭을 맞게 쓰지 못한 경우	5점
'살색'만 찾아 쓰고,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어 쓰지 못하고, 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는 까닭도 맞게 쓰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언어폭력의 문제점 이해하기

- 08** 이 글은 언어폭력 중 욕을 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첫째,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성격이 거칠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언어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두 가지를 맞게 쓴 경우	10점
언어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하나만 맞게 쓴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과 문제점 이해하기

- 09** 이 만화에는 공개적으로 특정 연예인을 헐뜯는 글과 그 연예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악성 댓글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사이버 언어폭력이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는 문제를 일으킨다.

채점 기준	배점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 두 가지와 문제점을 모두 맞게 서술한 경우	10점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 중 한 가지를 맞게 쓰고, 문제점을 맞게 서술한 경우	7점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만 맞게 쓰고, 문제점을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존중하는 말하기의 방법 이해하기

- 10** 이 대화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마음을 헤아리는 존중하는 말하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민재'와 '정아'이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며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정아'는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민재'와 '정아'를 모두 찾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맞게 쓴 경우	10점
'민재'와 '정아' 중 하나만 찾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맞게 쓴 경우	5점
'민재'와 '정아'만 찾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맞게 쓰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4 갈등을 넘어, 서로를 향해

(1) 갈등을 담은 문학

본문 224~225쪽

개념 확인

- 1 갈등 2 (1) 외 (2) 외 (3) 내 (4) 외 3 (1) ○ (2) ×
4 (1) 결말 (2) 발단 (3) 절정 (4) 전개 5 원인 6 심리
7 가치관 8 (1) × (2) × (3) ○

확인 문제

본문 229~247쪽

- 1 ① 2 ⑤ 3 ③ 4 ③ 5 숨겨 둔 공과 쌍안경을 숙모나 삼촌이 알게 되는 것 6 ③ 7 거스름돈
8 ⑤ 9 ② 10 역순행적 구성 11 ③ 12 ⑤
13 ① 14 ⑤ 15 거스름돈을 고깃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숙모)에게 알리지 않고 돌이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 16 ② 17 ⑤ 18 ① 19 ④ 20 ①
21 ① 22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듯 23 삼촌을 속인 것, 써서는 아니 될 돈을 쓰고 만 것 24 ① 25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외적 갈등) 26 ③ 27 ④ 28 ②
29 ④ 30 ① 31 ⑤ 32 문기에게서 (환등 틀을 살) 돈을 받아 내는 것 33 ② 34 ③ 35 ⑤ 36 ④
37 점순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38 ② 39 ④ 40 하늘 41 문기는 선생님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려 했으나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잘못을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42 ③ 43 ④
44 ① 45 ⑤ 46 ①

- 1 이 글의 갈래는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을 덧붙여 꾸며 낸 이야기인 '소설'이다.

오답 해설

②는 수필, ③은 시, ④는 주장하는 글, ⑤는 시나리오나 희곡 같은 극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 2 ①은 인물과 배경이 제시되고 갈등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발단' 부분이다.

오답 해설

소설의 구성 단계상 ①은 위기, ②는 절정, ③은 전개, ④는 결말에 해당한다.

- 3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심리까지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하여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시점'이라고 불린다.

오답 해설

①은 1인칭 주인공 시점, ②는 1인칭 시점, ④는 3인칭 관찰자 시점, ⑤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개념 플러스

소설의 시점

1인칭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함.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속 관찰자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함.
3인칭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함.
	3인칭 전지적 시점	작품 밖 서술자가 신과 같은 위치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함.

- 4 ①에서 문기는 숨겨 놓은 공이 사라진 것을 알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숙모의 눈치를 살핀다. 서랍 속에 넣어 둔 쌍안경마저 사라진 것을 알고는 삼촌이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며 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행동들로 보아 문기가 몹시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서술형] 문기는 공이 사라진 것을 알고 동네 아이들이 집어 갔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숙모 손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쌍안경마저 함께 사라진 것을 보고 필시 삼촌이 가져간 것이라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공과 쌍안경이 문기가 삼촌과 숙모 모르게 숨겨 둔 물건임을 짐작할 수 있다.

- 6 문기는 숙모가 고기를 사 오라며 준 돈이 일 원이라고 생각하고 일 원에 대한 거스름돈을 예상했는데 고깃간 주인이 십 원에 대한 거스름돈을 주자 의아하게 생각하며 이를 '이상한 일'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문기가 고깃간 주인이 거스름돈을 맞게 주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고깃간 주인은 문기가 십 원을 냈다고 생각하여 거스름돈으로 지전 아홉 장과 은전 몇 닢을 얹어 준 것이다.

② 문기가 수만이가 시키는 대로 잔돈만 숙모에게 갖다 주었을 때 숙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숙모는 문기에게 고기를 사 오라며 일 원을 주었다.

④ 고깃간 주인은 문기에게 거스름돈을 맞게 주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바로 부주하게 일을 한 것이다.

⑤ 문기는 숙모가 고기를 사 오라며 일 원을 주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고깃간 주인이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주자 의아하게 여긴 것이다.

- 7 문기가 고깃간에서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큰돈을 거스름돈으로 받으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 8 이 글은 193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은전, 지전, 일 원, 동구미' 등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들로 1930년대에 주로 쓰였던 어휘이다. '삼거리'는 '세 갈래로 나누어진 길'

을 의미하는 말로 지금도 쓰이고 있어 당시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라고 보기 어렵다.

9 수만이는 문기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상황을 짐작한다. 그래서 숙모가 문기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기에게 잔돈만 먼저 숙모에게 주어 보라고 제안한 것이다.

10 ㉠은 사건이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현재 → 과거’의 시간 순서로 사건을 서술하는 것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

11 문기는 ‘수만이가 시키는 대로 끌려 하기만 하면 남이 하래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자기 책임은 없는 듯싶었다.’, ‘수만이는 수만이대로 돈은 문기가 만든 돈, 나중에 무슨 일이 난다 하여도 자기 책임은 없으니까 또 안심이었다.’에서 문기와 수만이 둘 다 거스름돈을 멋대로 쓰는 일이 옳지 않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핑계 삼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문기 역시 돈을 쓰고 싶었던 차에 수만이를 핑계로 돈을 쓴 것이다.
- ② 수만이가 문기에게 거스름돈을 쓰자고 먼저 제안하였다.
- ④ 수만이는 문기의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 ⑤ 문기는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으나 밝은 큰 한길로 나오면서 기쁨을 느꼈다.

12 문기는 으스스한 골목에서 밝고 큰 한길로 이동하면서 두려움을 잊고 기쁨에 젖은 모습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 ① 시간이 흐르면서 문기는 두려움, 불안함에서 벗어나 기쁨을 느끼고 있다.
- ② 문기가 처한 상황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수만이와 문기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과거 회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13 수만이는 거스름돈을 생각보다 많이 받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문기더러 숙모에게 잔돈을 먼저 주어 보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것을 확인하고는 그 돈을 둘이서 함께 쓰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하며 문기가 거스름돈을 쓰도록 꾀어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수만이는 ‘문기가 만든 돈, 나중에 무슨 일이 난다 하여도 자기 책임은 없으니까 안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문기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④ 수만이는 문기가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 ⑤ 수만이는 문기가 말한 ‘이상한 일’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문기가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피를 낸다.

14 문기와 수만이는 쓰고 남은 돈으로 다음에 환등 틀을 사러 가기로 약속을 하였다.

15 [서술형] 수만이는 문기가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고깃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숙모에게 알리지 않고 둘이 함께 써 버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6 5에서 문기는 숨겨 둔 공과 쌍안경을 들켜서 삼촌에게 꾸중을 듣고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잘못 받은 거스름돈으로 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수만이가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황을 모면하고 있으므로 문기와 삼촌이 더 크게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어머님은 어려서 돌아가시구 아버지는 저 모양이시구’라는 삼촌의 말을 통해 문기의 가정 환경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삼촌은 문기에게 질문을 하거나 잘못을 깨우치는 말을 하는 등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문기는 ‘말이 없’이 삼촌의 말을 듣고 있다.
- ④ 삼촌은 “난 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구 사람을 만들어 주려구 애를 쓰는데 너두 그 뜻을 받아 주어야 사람이 아니냐.”, ‘이후론 절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면서 문기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벌겋게 얼굴이 달아 수그리고 앉았다.’라는 외양 묘사를 통해 문기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7 삼촌은 공과 쌍안경을 수만이가 주었다는 문기의 대답에 대해 “네 입으로 수만이가 줬다니 네 말이 옳겠지. 설마 네가 날 속이냐 하겠니?”라고 하며 문기의 말을 믿어 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삼촌은 문기가 숨겨 두었던 공과 쌍안경을 문기 앞에 꺼내 놓으며 문기와 대화를 이어 가고 있다.
- ② 문기는 삼촌이 두 번 세 번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없는 척 하였으나, 결국 삼촌과 대면하게 되었다.
- ③ “어머님은 어려서 돌아가시구”, “난 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구 사람을 만들어 주려구 애를 쓰는데”라는 삼촌의 말을 통해 문기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삼촌은 공과 쌍안경이 아이들이 사기에 비싼 물건임을 지적하고, 수만이가 사 준 것이라 하더라도 비싼 물건을 덥석 받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후론 절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도 하였다. 이를 통해 삼촌이 문기가 수만이에게 공과 쌍안경을 받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앞으로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너 하나야.”, “난 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구 사람을 만들어 주려구 애를 쓰는데”에서 문기를 향한 삼촌의 기대와 애정, 책임감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 ② 삼촌은 문기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 주면서 문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문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삼촌은 문기에게 관심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문기의 잘못된 행동을 빨리 눈치챘다.
- ④ 문기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것은 삼촌과 마주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또한 삼촌이 문기가 자신을 어려워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성실치 못한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훗 나쁜 데 빠지거나 하면 첫째 네 꼴은 뭐구 내 모양은 뭐냐?”는 삼촌이 문기의 최근 행동이 걱정되어서 한 말이지, 자신의 체면이 떨어진 것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19 삼촌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하던 문기가 이어지는 삼촌의 꾸중에서 ‘벌겍게 얼굴이 달아 수그리고 앉’아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0 자신의 행동을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고 합리화하고 있던 문기는 삼촌의 꾸중을 통해 그것이 제 허물을 남에게 미루려는 얄미운 구실임을 직시하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따라서 ‘삼촌의 꾸중’은 문기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계기를 제공한다.

21 문기의 아버지에 대해 ‘일상 천 냥 만 냥 하고 허한 소리만 하면서 남루한 주체에 거처가 없이 시골, 서울로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서술되고 있으나, 문기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 ②, ⑤ ‘자기는 수만이가 시켜서~이미 삼촌을 속이었다.’에서 삼촌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지 않은 것에 문기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수만이에게 미루려 한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③ ‘삼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결심하던 문기가 아니냐.’에서 문기가 삼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④ ‘문기는 두 번 다시~집을 향해 돌아간다.’를 통해 문기가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도 고깃간 주인에게 돌려주고 난 뒤 죄책감에서 벗어난 문기의 심리를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듯’ 후련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23 [서술형] ‘이미 삼촌을 속이었다.’ ‘또 써서는 아니 될 돈을 쓰고 말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주인에게 돌려준 문기는 갈등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후련함을 느끼지만, 함께 돈을 썼던 수만이가 등장해 환등 틀을 살 돈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다. 이와 같이 문기 앞에 등장한 수만이는 문기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로 외적 갈등을 유발한다.

25 9에는 돈을 돌려주었다는 문기와 이를 믿지 않고 돈을 내놓으라는 수만이의 대립이 드러나 있으므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임을 알 수 있다.

26 문기는 수만이가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자 ‘이쪽 저쪽 주머니를 털어 보이는’ 등 순진한 모습을 보이고, 거둬되는 수만이의 요구에도 더 변명하거나 거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수만이를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지을 뿐이다. 이로 볼 때 문기는 순진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⑤ 수만이의 성격에 해당한다.

27 9에서 문기는 쓰고 남은 거스름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져 버려서 이제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수만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그러나 수만이는 문기가 혼자 돈을 쓰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겨 문기의 말을 믿지 않는다. 따라서 ‘문기가 수만이에게 돈이 없는 까닭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는 이 글을 읽고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뜻하지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나타났다.’에서 문기는 수만이가 자기를 찾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너 혼자 두고 쓰잔 말이지.”, “누군 너만 못 약을 줄 아니?”, “돈만 이리 내.”와 같은 말에서 수만이가 돈이 없다는 문기의 말을 전혀 믿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수만이가 문기의 역살을 잡은 것이나 “넌은 안 만날 테냐. 어디 두고 보자!”라고 으박지르는 모습에서 수만이가 문기로부터 돈을 받아 낼 때까지 계속 괴롭힐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⑤ 문기가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거스름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져 버린 것은 잘못을 덮은 것일 뿐 진정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 문기가 자신의 잘못을 삼촌에게 모두 고백하고 반성하여 갈등의 근본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문기는 환등 틀을 사러 가자는 수만이에게 ㉠과 같이 말하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결심을 드러내고 있다.

29 10에서는 수만이가 문기에게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집요하게 문기를 괴롭히고 문기가 이로 인해 점점 더 큰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0 수만이는 ‘김문기는 ○○○했다.’라는 낙서를 학교 가는 길의 판장, 빈지판뿐만 아니라, 교실 칠판에도 써 놓고 문기를 협박했다. 으스스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면 소문을 내겠다고 하고, 학교를 파한 후에는 “앞에 가는 아이는 ○○○했다지.”, “앞에 가는 아이는 ‘질적도’했다지.”라고 외며 따라왔다. 또한 문기 집 가까이까지 와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넌은 가만 안 둔다. 도적질했다 하구 똑바루 써 놓을 테야.”라며 협박을 이어갔다. 따라서 문기는 수만이의 협박에 계속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수만이는 판장, 빈지판, 교실 칠판에까지 ‘김문기는 ○○○했다.’라는 낙서를 한다. 이는 장난삼아 한 것이 아니라 문기에게 돈을 받아 내기 위한 협박 행위로 볼 수 있다.
- ③ 선생님은 문기와 수만이 사이의 일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칠판에 적힌 ‘김문기는 ○○○했다.’라는 글을 보고 누구 장난이나 하고 씩씩 지워 버리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수만이가 문기를 괴롭히는 행위는 모두 문기에게 돈을 받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⑤ 수만이는 문기가 불안감, 두려움에 내몰려 돈을 내놓게 만들기 위해 도둑질을 ○○○으로 가려 쓰며 문기를 압박하고 있다.

31 수만이는 등교할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계속 문기를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이는 문기를 괴롭혀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집요하고 비열한 행동이다.

오답 해설

- ① 수만이의 행동은 돈만 받아 내면 되는 것으로, 문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떼뻗하지 못한 돈인 것을 알면서도 환등 틀을 같이 사러 가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수만이의 말은 타당하지 않다.
- ③ 수만이는 문기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문기를 따라다니며 협박하고 있다.
- ④ 문기는 소극적이지만 착한 성격이어서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수만이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32 [서술형] 수만이의 “정말 돈 너만 두고 쓸 테냐”, “너 지금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낼은 가만 안 둔다.” 등의 말을 통해 수만이가 원하는 바는 문기에게 돈을 받아 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3 수만이가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는 교실 칠판에까지 ‘김문기는 ○○○했다.’를 써 놓은 것을 본 문기는 걱정, 두려움, 괴로움, 불안함에 휩싸인다. 사건 전후에 나타나는 문기의 행동으로 볼 때 ‘분노’의 감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4 수만이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숙모의 돈을 훔친 문기의 행동은 또 다시 허물을 범했다는 죄책감을 불러온다. 그리고 돈을 훔친 범인으로 몰린 점순이가 일하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더해져 문기는 더욱더 심한 내적 갈등 상황에 내몰린다.

오답 해설

- ① 외적 갈등을 유발하는 새로운 인물은 **11**, **12**에 나타나지 않았다.
- ② 수만이와의 갈등은 해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문기에게 더 깊은 내적 갈등이 생겼다.
- ④ 문기의 갈등을 해결할 조력자는 등장하지 않았다.
- ⑤ 문기가 돈을 줌으로써 수만이와의 갈등은 해결되었으나, 둘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5 수만이의 협박에 못 이겨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이에게 준 것은 잘못을 덮기 위해 또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볼 수 있다.

36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이에게 주고 수만이와의 갈등을 해결한다. 그러나 수만이의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숙모의 돈을 훔쳤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한다.

오답 해설

- ① 수만이에 대한 저항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값으면 고만 아니냐.’를 되뇌는 문기의 행동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으로 의지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 ③ 문기는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어 값으면 된다고 생각만 할 뿐이므로 돈을 값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문기가 자신이 훔친 돈만큼 절약해서 그 돈을 값으면 그만이라고 계속 되뇌는 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지, 계산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37 [서술형] 점순이는 문기 때문에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일하던 집에서 쫓겨나 그날 밤 아랫방 들창 밑에서 울고 있었다. 이러한 점순이의 울음소리로 인해 문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는 점순이의 울음소리가 문기의 죄책감을 심화했기 때문이다.

38 13, 14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사건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는 부분으로 소설의 구성 단계상 ‘절정’에 해당한다.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는 ‘결말’이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은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문기의 내면 심리를 자세히 전달하고 있다.
- ③ 이 글에서는 양심을 의미하는 ‘하늘’을 통해 정직한 삶의 추구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④ 수신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직’을 통해 문기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직접 제시되고 있다.
- ⑤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마음대로 썼던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문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39 ‘맑고 푸른 하늘’은 정직, 양심을 의미하며 문기의 정직하지 못한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문기는 잘못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하늘을 떼뻗이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0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문기에게 ‘양심’을 의미하는 맑고 푸른 하늘은 죄책감을 심화하는 소재이다. 문기는 맑고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떼뻗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문기가 추구하는 이러한 떼뻗한 마음의 상태는 이 글의 주제인 ‘양심을 따르는 정직한 삶의 태도’와 통한다.

41 [서술형] 문기의 성격은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이런 성격으로 인해 문기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2 이 소설은 문기가 겪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문기가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하면서 갈등이 해결된다.
- ② 수만이와의 외적 갈등도 드러나지만, 거스름돈을 함부로 쓴 일과 숙모의 돈을 훔친 일로 인한 문기의 내적 갈등도 나타난다.
- ④ 문기가 맞서야 할 사회적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⑤ 이 소설에서는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43 15는 이 소설의 구성 단계상 ‘결말’에 해당한다. 결말 부분에서는 사건과 갈등이 해결되고 마무리되면서 긴장감이 해소된다. **15**에서는 문기가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털어놓으면서 문기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오답 해설

소설의 구성 단계상 ①은 ‘위기’, ②는 ‘절정’, ③은 ‘전개’, ⑤는 ‘발단’ 부분의 특징에 해당한다.

44 문기는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써 보지만, 삼촌에게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을 뚫듯이 볼 수 있다고 느끼며 갈등에서 벗어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양심에 어긋남 없이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45 문기는 삼촌에게 자신의 상황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똑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하고 있다. 허물을 남에게 미루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문기는 소심한 성격 탓에 용기가 부족하여 선생님 집에 자백을 하러 갔다가 실패했다. 그러나 이제는 용기를 내어 삼촌에게 잘못을 숨김없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문기의 성격이 변화하고 문기가 정신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문기는 자신의 양심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한다.
- ③ 문기는 삼촌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 뚝뚝 해졌다. 따라서 '자백'은 문기가 자신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삼촌에게 모든 것을 밝힌 문기는 '하늘을 뚫듯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로소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다.

46 잘못을 고백하기 전에 문기는 하늘을 쳐다보기가 두렵다. 자기는 뚫뚫한 얼굴로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삼촌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난 후에는 뚫뚫이 마음껏 하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답 해설

- ② 문기는 거스름돈으로 산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져 버리며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했지만, 이 때문에 수만이와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다.
- ③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마음대로 쓴 행동으로 인해 문기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 ④ 문기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쓰러 가면서 자신은 수만이가 시키는 대로 끌려 한 것이니 자기 책임은 없다며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했다. 그 결과 문기는 삼촌에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 이른다.
- ⑤ 문기는 수만이의 협박에 결국 숙모의 돈을 훔치게 되고, 이로 인해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248~251쪽

- 1 ③ 2 ㉠, ㉡, ㉢, ㉣, ㉤ 3 ⑤ 4 ② 5 ⑤
6 ⑤ 7 ⑤ 8 ㉣

- 1 문기는 삼촌의 꾸중을 듣고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만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져 버린다.
- 2 소설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로 구성된다. ㉠은 결말, ㉡, ㉢은 전개, ㉣은 발단, ㉤은 위기 부분의 내용이다.

3 이 소설에서는 문기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과 문기와 수만이 사이의 인물 간의 갈등(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4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털어놓기 위해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지만 자백하지 못하고,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문기는 남은 돈을 고깃간에 돌려주고 후련해한다. 그러나 돈을 돌려주었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는 수만이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수만이와의 갈등이 시작된다.
- ③ 삼촌에게 꾸중을 들은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에 돌려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해결했다고 생각하여 죄책감에서 벗어난다.
- ④ 문기는 수만이의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이에게 준다. 그리고 돈을 훔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 ⑤ 점순이가 돈을 훔친 범인으로 몰려 일하던 집에서 쫓겨나자 문기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진다.

5 문기는 수만이에게 남은 거스름돈을 고깃간 주인에게 돌려주어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믿지 않는 수만이는 문기가 혼자 돈을 쓸 속셈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문기와 수만이의 갈등은 문기가 수만이에게 돈을 고깃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얘기를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므로 ⑤와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② 문기는 삼촌의 꾸중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만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거스름돈을 고깃간 안마당에 던져 버리는 등 잘못을 숨기려는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는 비겁하며 자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문기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일어난 수만이와의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숙모의 돈을 훔치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
- ④ 문기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수만이가 하자는 대로 할 뿐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그리고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6 문기는 수만이의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숙모의 돈을 훔치고 이 일로 몹시 괴로워한다. 결국 문기는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갈등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이 소설의 주제인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따라서 ⑤와 같은 조언이 적절하다.

7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해결한 뒤에야 비로소 스스로 양심의 가책, 죄책감에서 벗어나 이제 하늘을 뚫듯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하늘'은 문기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소설의 구성 단계는 갈등의 전개에 따라 진행된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결말의 계기가 마련되는 단계는 '절정'이다.

1 ② 2 ① 3 ③ 4 ②

- 1 이 만화에는 발레를 하고 싶은 덕출과 이에 반대하는 가족들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덕출은 지금까지 자식들을 키우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음을 이야기하며 이제 나이가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평생의 꿈을 이루고 싶다는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 그러나 가족은 점잖지 못하다, 나이 많은 사람이 발레를 하는 것이 '창피'하다며 사회적 시선을 이유로 덕출의 뜻에 반대한다.

오답 해설

- ④ 덕출의 발레 도전에 반대하는 가족에게 덕출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⑤ 덕출은 은퇴한 우체부로 그동안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발레에 대한 꿈을 미뤄 두고 있었다.

- 2 이 만화에서는 발레에 대한 덕출의 열정과 노력을 보며, 덕출의 꿈에 반대하던 가족도 덕출을 응원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와 같이 덕출이 겪은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꿈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 ②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꿈에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절망 끝에 피워 낸 예술혼과는 거리가 멀다.
③ 덕출은 열정과 노력으로 남자 노인에게 발레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을 가진 가족의 생각을 바꾸어 낸다.
④ 덕출의 가족은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혀 덕출의 발레 도전을 반대하였으므로 덕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결국 덕출의 가족이 덕출의 꿈을 응원하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가족의 단절은 이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 3 발레를 하고 싶은 덕출과 남자 노인이 발레를 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이런 가족들의 생각은 사회적 편견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이 만화는 나이와 상관 없이 자신의 꿈에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 덕출의 모습을 통해 노인과 발레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을 깨뜨려 나가고 있다. 또한 꿈을 추구해 나가는 노력과 열정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누군가의 꿈이 적절한지 판단하거나 많은 사람의 보편적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 덕출의 모습을 통해 성별이나 나이는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③, ④, ⑤ 덕출은 '노인과 발레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을, 열정과 노력으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통해 깨뜨려 나갔으므로 내가 당연히 그러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어찌하면 사회적 편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③)을 할 수 있고, 노인이나 발레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④)도 할 수 있으며, 덕출의 행동 자체가 그 어떤 말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⑤)도 할 수 있다.

1 ㉠ 갈등 ㉡ 발단 2 ㉣

- 1 '갈등'은 인물과 외부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을 의미하고, '발단'은 소설의 구성 단계에서 등장인물과 배경이 제시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을 가리킨다.

- 2 '딹적딹적'은 '무슨 일이나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답 해설

- ① '상냥하게'의 의미이다.
② '구땀없이'의 의미이다.
③ '불편하게'의 의미이다.
⑤ '조심스레'의 의미이다.

소단원 핵심 문제

- 01 ④ 02 ② 03 ⑤ 04 ③ 05 ④ 06 ③
07 ④ 08 숙모의 돈을 훔친 것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갚으면 해결될 문제이니 괜찮다는 의미의 말을 반복하고 있다. 09 ⑤ 10 ③ 11 ①
12 ② 13 ⑤ 14 ③ 15 ② 16 ㉠, ㉡ 17 문기는 떳떳한 마음을 지니고 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이러한 깨달음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01 (가)~(라)는 소설의 구성 단계상 '전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 (라)에서 삼촌의 꾸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문기의 심리를 자세하게 서술하여 문기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소설 구성 단계상 '발단'에 대한 설명이다.
② 소설 구성 단계상 '절정'에 대한 설명이다.
③ (가)~(라)에는 조력자가 등장하지 않으며, 갈등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
⑤ 문기의 갈등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 02 삼촌은 공과 쌍안경을 수만이가 주었다는 문기의 대답을 듣고 '남이 준다고 아무것이나 딹적딹적 받는다'는 것 두 생각해볼 일'이라며 주의를 주고, 이어서 문기가 '성실치 못한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혹 나쁜 데 빠지거나' 할까 봐 걱정을 한다. 이로 보아 삼촌은 문기가 수만이와 어울리면서 나쁜 영향을 받을까 봐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문기의 아버지는 '허한 소리만 하면서 남루한 주제에 거처가 없이 시골, 서울로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서술되고 있으나, 문기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지는 알 수 없다.

- ③, ⑤ 삼촌은 '조카의 장래를 자기의 그것보다 더 중히 알고 염려하며 잘되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삼촌은 평소와 달리 잘못된 행동을 하는 듯한 문기의 상태를 바로 알아채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엄하게 꾸중하고 있으며 문기는 삼촌의 꾸지람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
- ④ 삼촌은 비싼 공과 생안경을 문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비싼 물건을 주었다는 수만이와 어울리는 것이 문기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삼촌은 공과 생안경을 수만이가 졌다는 문기의 말을 믿고 있는 상황이다.

03 (다)에서 '자기는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만, 당초에 그것은 제 허물을 남에게 미루려는 알미운 구실'이었다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기가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라)의 '또 써서는 아니 될 돈을 쓰고 말았다.'에 대해 해 줄 수 있는 말이다.
- ② (다)의 '문기는 이미 삼촌을 속이었다.'에 대해 해 줄 수 있는 말이다.
- ③ (라)의 '조카의 장래를 자기의 그것보다 더 중히 알고 염려하며 잘되어 주기를 바라는 삼촌이었다. 그 삼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인물이 되어 보이겠다고 엇그제도 주먹을 쥐고 결심하던 문기가 아니냐.'에 대해 해 줄 수 있는 말이다.
- ④ (다)의 '자기라는 몸은 벌써 삼촌의 이른바 나쁜 데 빠지고 만 것이었다.'에 대해 해 줄 수 있는 말이다.

04 삼촌에게 꾸중을 들은 문기는 혼자 되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방관적 태도란 어떤 일에 직접 나서지 않고 옆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태도를 말한다. ㉠에서 문기는 회피하고 있던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회의적 태도란 어떤 일에 대해 의심을 품는 태도를 말한다. 문기는 자신을 반성하고 있을 뿐, 의심을 품고 있지 않다.
- ④ 비관적 태도란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태도로, ㉠과는 거리가 멀다.
- ⑤ 낙천적 태도란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 역시 ㉠과는 거리가 멀다.

05 숙모는 "학교서 지금 오는 애가 알겠니."라며 없어진 돈과 문기는 전혀 관련이 없으리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숙모는 돈을 훔친 범인이 점순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⑤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이에게 주면서 수만이와의 갈등을 해결하지만 또다시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빠진다. 그리고 점순이가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일하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죄책감은 더욱 깊어진다.
- ③ 숙모의 돈을 훔친 일로 죄책감을 느끼는 문기는 숙모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 날이 저물 때까지 거리를 떠돈다.

06 문기는 수만이의 협박에 못 이겨 숙모의 돈을 훔치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한다. 그러나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난 후 죄책감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원이나 거리를 헤매거나 점

순이가 자신 때문에 일하는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이 한 일을 고백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소심하고 소극적인 행동을 보인다. 따라서 '두 번째 허물'이 소심했던 문기의 성격이 달라지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수만이는 문기를 협박하여 문기가 숙모의 돈을 훔치는 잘못을 저지르는 원인을 제공한다. 그리고 점순이는 문기가 벌인 일의 범인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일하던 집에서 쫓겨나면서 문기의 죄책감을 심화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오답 해설

- ① 수만이가 돈을 내놓으라며 문기를 협박한 것은 맞지만, 점순이는 문기가 돈을 훔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기를 원망할 수 없다.
- ② 수만이는 문기의 잘못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는 했지만 돈을 받고는 만족스러워한다. 따라서 폭로를 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난 점순이는 문기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수만이는 돈을 받기 전까지 문기에게 적대적, 위협적 태도를 보인다. 점순이가 문기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⑤ 수만이와의 외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숙모의 돈을 훔치면서 문기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고, 점순이로 인해 문기의 내적 갈등은 깊어진다. 따라서 수만이는 인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점순이도 인물 사이의 갈등 유발과는 관련이 없다.

08 [서술형] '값으면 고만 아니냐.'라는 말은 '훔친 돈을 값으면 지금의 잘못도 그만이다. 괜찮은 일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 말을 반복하고, 점순이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아, 문기는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이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려는 문기의 심리를 반영한다.

09 이 글은 작가가 현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가미해 허구적으로 꾸며 쓴 소설이다. ①~④는 모두 소설의 특징에 해당하지만 ⑤는 수필의 특성이다.

개념 플러스

소설의 특성

허구성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꾸며서 만들.
진실성	인생의 진실과 참모습을 추구하며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함.
서사성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사건이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됨.
모방성	배경이 되는 현실의 삶의 모습이나 시대의 특성을 반영함.
개연성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을 형상화함.
예술성	예술의 한 갈래로서 일정한 형식미와 예술미를 갖춘.

10 문기는 수만이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이에게 주었다. 수만이와 같이 합의하여 숙모의 돈을 훔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라)의 '그날 밤이었다. 아랫방 들창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그 집 주인 여자는 점순이를 때려 쫓아낸 것이다.'를 통해 문기가 쫓겨난 점순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라)의 '참 점순이 고년 앙금현 년이더라. 낮에 내가 뒤꼍에서 화초 모종을 내고 있는데 집을 간다고 나가더니 글썽 돈을 집어 갔구나.'라는 속모의 말을 통해 점순이가 속모의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라)의 '문기는 잠잠히 듣기만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값으면 고만이지 소리를 또 한 번 외어 본다.'를 통해 문기가 속모의 돈을 값으면 된다며 자신을 애써 합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에서 문기는 고깃간 집 마당에 남은 돈을 던진 후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듯 어깨가 거뜬했다. ~자기의 허물도 멀리 사라져 깨끗이 벗어난 듯 속이 후련했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문기가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1** (나)에 주로 나타나 있는 갈등 양상은 더 이상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문기와 남은 돈을 내놓으라는 수만이 사이의 외적 갈등이다. ①에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 ②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 나와 내가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부모님 사이의 외적 갈등(인물과 인물과의 갈등)이다.
- ③ 방을 깨끗이 사용하고 싶은 나와 방을 자꾸 어질러 놓은 언니 사이의 외적 갈등(인물과 인물과의 갈등)이다.
- ④ 청소년 순서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나와 반 아이들 사이의 외적 갈등(인물과 인물과의 갈등)이다.
- ⑤ 쓰레기 소각장 짓는 것을 반대하는 마을 사람들과 이를 지으려는 정부 사이의 외적 갈등이다.

개념 플러스

갈등의 양상

- **내적 갈등**: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 발생하는 갈등
- **외적 갈등**: 한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싼 외부 요인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 발생하는 갈등

인물과 인물과의 갈등	인물들 사이에 성격이나 생각이 대립하여 발생하는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이 자신이 속한 사회나 제도와 충돌하여 발생하는 갈등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	인물이 거대한 힘을 가진 자연환경과 부딪쳐 겪게 되는 갈등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	인물의 삶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 결정되거나 파괴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갈등

- 12**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수만이 앞에서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하는 태도를 통해 문기가 소극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 13** 이 글은 사건 진행에 따른 문기의 심리 변화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보다 시대적 배경에 초점을 맞춰 읽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감상 방법이다.

오답 해설

- ①, ③ 소설은 갈등이 발생하고 고조되고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주제를 전달한다. 따라서 이 글과 같은 소설을 읽을 때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며, 작가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즉 주제를 파악하며 감상해야 한다.
- ② 이 글은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후 여러 어려움과 고민을 겪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특히 두드러진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내적 갈등을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 ④ 이 글은 등장인물인 문기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민, 갈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성장 소설이다. 또한 소설은 꾸며 쓴 글이지만 인물의 진실을 담고 있으며 삶의 참된 모습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 글을 감상할 때 문기의 성장 과정을 살펴 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14** (라)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말 부분이다. 이 장면에서 삼촌은 문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것이 예상되므로 둘의 새로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④ (라)에서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삼촌에게 정직하게 고백함으로써 두려움과 불안함,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있다. 즉 문기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라)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고깃간 주인이 일 원을 십 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것, 그 돈을 써 버린 것, 그리고 또 불장 안의 돈을 자기가 훔쳐 낸 것,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하자.'에 문기가 양심을 속이며 한 일들이 나열되어 있다.

- 15** (나)에서 문기는 스스로 저지른 일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자신이 맑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기가 부끄럽다고 느낀다. 즉 '하늘'은 문기에게 양심을 일깨우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이다.

- 16** (라)에서 문기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을 받은 것으로 여기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또한 (나)를 통해 문기가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하늘을 쳐다보기 두려워했던 것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로 느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⑥ 문기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수신 시간에 선생님이 정직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자신에게만 하는 말인 것처럼 느낀 것일 뿐, 선생님이 문기에게 직접 꾸중을 한 것은 아니다.
- ④ 삼촌은 교통사고를 당한 문기가 격정되어 근심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본 것일 뿐, 이것을 문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는 벌로 볼 수는 없다.

- 17 [서술형]** 문기는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이고, 이러한 다짐이 문기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2) 추론하며 듣기

본문 264~265쪽

개념 확인

- 1 담화 2 맥락 3 추론 4 (1)㉔ (2)㉔ (3)㉔
5 추론 6 ○ 7 (2)준 (3)비 8 ㉔ 9 상황 맥락
10 ㉔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268~273쪽

- 1 ㉔ 2 ㉔ 3 ㉔ 4 ㉔ 5 의도 6 ㉔ 7 ㉔
8 ㉔ 9 ㉔ 10 ㉔

- 1 성주와 아버지는 6시까지만 게임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성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6시 20분까지 계속 게임을 하고 있다. ㉔에서 아버지가 성주에게 몇 시인지를 묻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㉔은 아버지가 성주에게 약속 시간이 지났음을 환기하여 게임을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로 시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시계를 안 가지고 나온 정원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 성주에게 ㉔에서 몇 시인지를 묻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㉔은 현재 시간을 알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야 할 것이다.

- 2 ㉔은 시계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정원이 친구에게 시간을 묻는 상황으로 현재 시간을 알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㉔은 아버지가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약속을 일깨우기 위해 시간을 묻는 상황으로, 아들에게 아버지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 몇 시니?”라는 질문이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추론하며 듣기란 담화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의도를 짐작하며 듣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대화의 목적, 경험이나 배경지식, 상대방의 의도,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며 들어야 한다. 아는 내용이 나오는지 집중하며 듣는 것은 추론하며 듣기의 방법과 거리가 멀다.

- 4 아버지는 성주가 6시까지만 게임을 하기로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 현재 몇 시인지 묻고 있다. 이 말 속에는 성주가 게임을 그만하기를 원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 5 ㉔에서 성주는 “지금 몇 시니?”라는 아버지의 물음에 “6시 20분이요.”라고 답하고 있다. 아버지는 6시까지만 게임을 하기로 한 약속을 일깨우기 위해 현재 시간을 묻은 것인데, 성주는 단순히 현재 시간을 대답한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화하게 될 경우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없다.

- 6 ㉔은 무인 단말기 사용 확대에 인한 편리성, 장점 등을 근거로 무인 단말기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달하고 있고, ㉔은 무인 단말기 사용 확대에 인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있다. ㉔과 ㉔은 공통적으로 무인 단말기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다.

- 7 ㉔에서는 무인 단말기 사용의 편리성과 장점만을 다루고 있을 뿐, 문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무인 단말기 사용의 문제점을 다룬 것은 ㉔이다.

- 8 ㉔, ㉔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뉴스, 발표, 강의 등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담화 역시 생산자의 의도나 주장이 반영되므로 숨겨진 의도를 추론하며 들어야 한다.

- 9 이 광고는 시청자가 가족, 특히 부모님께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목적의 광고이다.

- 10 이 광고는 타인과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 봄으로써 부모님께 “고마워요.”와 같은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의 마지막 장면에 추가할 대사로 적절한 것은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하라는 의미를 담은 ‘부모님께 다정한 말을 전합니다.’이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274~275쪽

- 1 ㉔ 2 ㉔ 3 ㉔

- 1 라디오 광고의 화자는 콜센터 통화 연결음에 담긴 뜻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 2 할머니가 옷을 껴입고 있는 상황은 할머니가 추위를 느낀다는 표시이다. 이러한 상황 맥락에서 창문이 열려 있는지를 묻는 것은 추우니까 창문을 닫으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나’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이를 친구가 간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친구가 과자가 먹고 싶어 하는 상황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나’가 친구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면 ‘나’는 상황 맥락을 통해 친구의 의도를 잘 파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② 2 (1) 미담 (2) 덕담 (3) 상담

- 1 둘 이상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를 ‘담화’라 한다.
- 2 (1)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주는 파스함이 있는’ 이야기라는 의미므로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내용을 가진 이야기’라는 의미의 ‘미담’이 적절하다.
 (2) 긴장한 선수에게 감독이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건네는 말은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남이 잘되기를 비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 ‘덕담’이 적절하다.
 (3) ‘미담’이나 ‘덕담’은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담’이 적절하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280~281쪽

- 01 ① 02 ⑤ 03 ⑤ 04 ③ 05 ㉠ 오이무침을 못 먹는 사람이 ㉡ 나를 도와 책을 들어 준 사람이 06 ③
 07 ① 08 ④ 09 타인에게는 친절하면서 부모님에게는 무심한 자녀 세대를 비판하고 있다.

- 01 성주는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묻는 정원이의 질문에 현재 시간을 알려 주고 있다. 정원이의 상황 맥락과 의도를 고려해서 그에 맞게 대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성주가 6시까지만 게임을 하겠다고 아버지와 약속을 했으나 6시 20분이 되어서도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어 아버지가 약속을 상기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주는 이러한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대답하고 있다.
 ③ 성주는 게임을 그만하라는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이 몇 시냐는 질문의 표면적 의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대화에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성주의 말에 함축적인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⑤ 선생님의 책을 들어 드리겠다는 성주의 말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으며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념 플러스

문장 성분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 문장에서 어절 단위로 끊어져 나타난다.

문장 성분의 종류

- 주성분: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부분 -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 부속 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성분 - 관형어, 부사어
- 독립 성분: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 - 독립어

㉠ 선생님, 제가 책을 좀 들어 드릴게요.
 독립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 02 (나)에서 성주는 아버지와 6시까지만 게임을 하기로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은 상황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성주에게 아버지가 “지금 몇 시니?”라고 묻자 성주는 “6시 20분이에요.”라고 답하고 있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성주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이다.

- 03 학교 점심 급식에 오이무침이 나온 상황에서 성주가 오이무침을 못 먹는다고 말하며 자기 같은 사람이 없는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정원이가 우리 반에는 너밖에 없다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정원이는 성주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답한 것이다.

- 04 ㉠은 시계를 가져오지 않은 정원이가 성주에게 시간을 묻고 성주가 이에 대답하는 상황으로, 추론하며 듣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원활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은 6시까지 게임을 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성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아버지가 성주에게 약속 시간이 지났음을 환기해 게임을 그만하게 하고자 지금 몇 시냐고 묻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주는 아버지의 의도를 제대로 추론하지 못하고 현재 시간을 대답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④ ㉠은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여 대답하였으나, ㉡은 상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②, ⑤ ㉠은 상황 맥락을 파악하여 대답하였으나, ㉡은 상황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 05 [서술형] ㉠과 ㉡ 모두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은 성주가 오이무침을 못 먹는 사람은 없는지 묻은 것에 대한 대답이므로 “우리 반에는 너밖에 없어.”의 주어는 ‘오이무침을 못 먹는 사람’이다. ㉡은 성주가 선생님을 도와 선생님의 책을 들어 드리겠다는 상황이므로 “너밖에 없다.”의 주어는 ‘나를 도와 책을 들어 주겠다는 사람’이다.

- 06 광고의 의도를 적절히 추론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나타난 상황 맥락, 광고의 예상 시청자, 생산자의 의도, 활용된 표현 방법의 의도 등을 이해해야 한다. 광고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은 몰라도 광고의 의도를 추론하는 데 문제가 없다.

- 07 이 광고의 목적은 부모님께 따뜻한 말로 마음을 표현하도록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 해설

- ② 고마운 상황, 축하할 상황, 미안한 상황 등 정서를 표현하는 말을 해야 하는 유사한 상황을 나열하고 있다.
 ③ 선배, 여자 친구, 동료 등 가족 외의 타인에게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다정하게 하면서, 부모님에게는 무뎌보고 무심하게 말하는 상황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④ 생산자의 의도나 관점이 직접 제시되지 않고 광고의 표현 방법, 내레이션,

- 화면이나 음악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론하며 들어야 한다.
- ⑤ 밥을 대접받는 상황, 생일을 축하하는 상황,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상황 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상황들이다. 이 광고는 이렇게 누구나 경험할 법한 일상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08 이 광고의 의도와 목적,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부모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따뜻한 말을 전하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 들어갈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협력의 가치를 전달하는 말이다.
- ② 말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말이다.
- ③ 개인의 행동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부모님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의미로 보기 어렵다.
- ⑤ 사람을 존중해야 함을 전달하는 말이다.

09 [서술형] 부모님께 따뜻한 말로 마음을 표현하도록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광고에서는 타인에게는 친절하면서 부모님께는 무심한 태도가 반복적으로 대조되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이러한 태도 차이를 보이는 자녀 세대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본문 288~293쪽

- 01** ① **02** ① **03** ⑤ **04**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
- 05** ② **06** ③ **07** ④ **08** 정직 **09** ④ **10** ②
- 11** ④ **12** ① **13** ④ **14** ① **15** ①은 땀땀하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땀땀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기가 용기를 내어 자신이 잘못된 일을 선생님이나 삼촌에게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땀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6** ①
- 17** ① **18** ④ **19** ③ **20** 무인 단말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유리벽으로 막힌 것처럼 소외되고 단절되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21** ② **22** ⑤ **23** ③ **24** 자녀들이 부모님께 고마움, 사랑, 미안함 등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도록 설득한다.

01 문기는 '수만이가 시키는 대로 끌려 하기만 하면 남이 하래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자기 책임은 없는 듯싶었다.'라며 돈을 쓰는 것에 그럴듯한 핑계를 붙여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문기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쓰는 것을 수만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을 뿐, 수민이와의 우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

- ③ 문기는 자기가 돈으로 바꾸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문기는 자신의 행동을 수만이의 책임으로 돌리고 돈을 쓰기로 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⑤ 문기는 수만이의 탓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래서 두 소년은 마침내 손이 맞고 말았다.'로 보아 수만이에게서 벗어날 공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민이와 같이 돈을 쓰기로 했다.

02 문기는 삼촌에게 꾸중을 듣고 방으로 돌아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삼촌을 속인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또한 자신을 보살펴 온 삼촌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다)에는 이와 같이 삼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현재의 모습 사이에서 문기가 겪는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03 삼촌은 문기에게 '앞으로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너 하나'라며 문기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구 사람을 만들어 주려구 애를 쓰'고 있음을 강조하여 문기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삼촌은 문기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 문기를 꾸중하고 삼촌의 꾸중을 들은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 ② '문기는 별걸개 얼굴이 달아 수그리고 앉'아서 삼촌의 꾸중을 들었다. 삼촌은 엄히 꾸중을 한 뒤 '이후론 절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단단한 다짐을 받은 후' 문기를 내보냈을 뿐, 여기에서 삼촌이 불안감을 느끼지는 알 수 없다.
- ③ 삼촌은 '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구 사람을 만들어 주려구 애를' 쓴다고 이야기하며 문기의 장래를 중히 여기고 염려하며 잘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삼촌이 그동안 문기를 잘 보살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촌이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삼촌은 수만이에게 비싼 공과 망원경을 받은 문기의 철없는 행동을 엄히 꾸중하며 못마땅함을 드러냈다.

04 [서술형] '문기가 만든 돈'은 문기가 고깃간에서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의미한다. 문기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고깃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수민이와 마음대로 쓰고 이로 인해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을 겪는다. 따라서 ①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05 (가)에서는 가진 돈이 없다는 문기와 문기에게 돈을 받아 내려는 수만이의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며, (다)에서는 수신 시간에 정직에 대해 강조하는 선생님의 의해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두드러진다.

06 수만이는 돈이 없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문기에게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문기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집요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문기는 수만이의 위협에 어떻게 변명할 줄 몰라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07 문기는 돈을 요구하는 수만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이에게 준다. 이로 인해 수만이와의 갈등은 일단 해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양심의 가책은 더욱 심해진다. 이로 보아 수만이에게 돈을 훔쳐다 준 문기의 갈등 해결 방법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잘못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수만이가 문기에게 돈을 요구하며 일어난 갈등이다.
- ② 문기는 수만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숙모의 돈까지 훔치고 만다. 이로 인해 수만이와의 기존 갈등은 해결되었지만, 문기의 내적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 ③ 수만이에게 숙모의 돈을 훔쳐다 줌으로써 돈을 요구하는 수만이와의 갈등은 일단 해결이 되었으나 이로 인해 문기의 새로운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모든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문기는 수만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숙모 몰래 돈을 훔친다. 숙모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

08 수신 시간에 정직의 중요성에 대해 누누이 말씀하시는 선생님을 보며 문기는 가슴이 뜨끔거리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문기는 자신이 잘못 받은 거스름돈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기의 모습을 보면서 독자는 정직의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09 문기는 ㉠에서 직접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 환등 틀을 사려갈 돈이 없음을 밝히고, 돈을 고깃간에 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만이는 문기가 돈을 혼자 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문기의 말을 믿지 않아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수만이가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문기가 돈이 없는 것이 고깃간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문기는 돈이 없다는 것을 수만이에게 설명하기 위해 “정말 없어. 지금 고깃간 집 안마당으로 던져 주고 오는 길이야. 공두 쌍안경두 버리구.”라는 말을 하고 ‘증거를 보이느라고 이쪽저쪽 주머니를 털어 보이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② 문기는 ㉠에서 가진 돈이 없는 자신의 상황을 직접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수만이는 문기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숨겨진 다른 의도, 즉 문기가 돈을 혼자 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 ⑤ 수만이는 돈이 없다는 문기의 말에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금세 능청스러운 웃음을 웃으며 혼자 돈을 쓰려는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이는 수만이가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통해 문기의 말에 담긴 속 뜻을 자기 식대로 추론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0 문기는 정직에 대한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러한 문기의 심리와 관련 있는 속담은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도둑이 제 발 저리다’이다.

오답 해설

- ①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질 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

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⑤ 아무리 놀려 지내는 미천한 사람이나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가만있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11 교통사고 전에 문기는 ‘전날처럼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 뗏뗏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뗏뗏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었다.’라고 하였고, 교통사고 후에 삼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는 ‘내일도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그리고 문기는 그 하늘을 뗏뗏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하늘’은 문기를 더욱 큰 절망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되찾고 싶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오답 해설

- ①, ⑤ 문기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으로 하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으나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는 하늘을 뗏뗏이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인 ‘하늘은 맑건만’에서 ‘하늘’은 문기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거울이자 양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늘을 뗏뗏하게 보기 위해서는 양심을 지키고 살아야 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② ‘맑은 하늘’은 정직하지 못하여 무겁고 컴컴한 마음을 갖게 된 문기의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③ ‘하늘은 맑건만’은 ‘하늘’은 맑는데 문기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이 글의 제목은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문기의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2 이 글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못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문기가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기 내어 고백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모습을 통해 정직을 추구하는 태도와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13 문기는 담임 선생님 집에 가서 잘못을 고백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실패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선생님이 문기에게 잘못을 고백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문기는 삼촌에게 잘못을 고백하고는 ‘마음이 맑아지며 따라 몸도 가뜰하게 졌다고 했다. 따라서 ①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③, ⑤ (나)에서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 마디 한 마디 그러나 똑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고깃간 주인이 일 원을 십 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것(⑤), 그 돈을 써 버린 것(②), 그리고 또 불장 안의 돈을 자기가 훔쳐 낸 것(③),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했다고 했다. 따라서 ②, ③, ⑤에 대해 잘못된 행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14 [A]에서는 잘못을 선생님께 고백하려다 실패한 문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B]에서 문기가 삼촌에게 잘못을 고백한 후 마침내 해소된다.

오답 해설

- ② [A], [B] 모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외양 묘사나 행동 묘사는 찾을 수 없다.
- ③ [A]는 죄책감이라는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고 있을 뿐, 공간의 이동이나 이에 따른 심리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B]는 갈등에서 벗

어난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고 있을 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A], [B] 모두 배경에 대한 묘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A], [B] 모두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15 [서술형] ㉠에서 문기는 맑은 하늘 아래서 몇몇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을 소망하고 있다. (나)를 통해 문기가 자신의 잘못을 삼촌에게 고백함으로써 비로소 하늘을 몇몇하게 마음껏 볼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기가 원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잘못을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16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선생님께 고백하려고 마음먹고 선생님 집까지 찾아가지만 결국 실패한다. 이로 인해 문기는 ‘먼저보다 갑절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 되어 자동차 소리도 듣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다. 따라서 문기의 고백 시도와 실패는 문기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여 소설의 구성상 절정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⑤ 문기는 선생님 집에까지 찾아가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못해 내적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된다.

③, ④ 문기가 선생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려 하는 것으로, 문기와 선생님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17 (가)는 무인 단말기 활용 확대가 가져오는 편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무인 단말기 활용 확대로 인한 소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무인 단말기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무인 단말기를 사용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은 (가)의 ‘사업주’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무인 단말기 사용으로 종업원의 감정 노동 문제가 줄어든다는 내용은 (가)에만 나온다.

④ 무인 단말기가 시각 장애인에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내용은 (나)에만 나온다.

⑤ 무인 단말기가 청소년 고객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것은 (가)의 ‘청소년 고객’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18 (나)는 무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점포가 늘면서 무인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 시각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뉴스이다. 이와 같은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똑똑한 유리벽’이라는 자막을 뉴스 화면에 띄우고 있는데, 여기서 ‘유리벽’은 공간을 나눈다는 이미지를 통해 ‘소외’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나 ‘똑똑한’은 무인 단말기의 편리성을 드러내는 말로, 무인 단말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나)의 의도를 드러내는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어려움, 소외’와 같은 부정적 단어를 사용하여 무인 단말기 사용 확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②, ③ 뉴스 제목과 마무리 말을 통해 무인 단말기 사용 확대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⑤ 어르신, 시각 장애인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겪는 무인 단말기 사용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이를 통해 무인 단말기 사용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19 (가)에서는 무인 단말기 활용의 확대로 얻게 되는 다양한 편리함과 장점 등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무인 단말기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연결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앞부분에 무인 단말기의 장점과 편리함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기능 개선 요구나 도태될 것이라는 전망,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앞부분에서 비대면 주문이 무인 단말기 사용의 편리함 중 하나라고 하였으므로 무인 단말기 사용보다 대면 주문이 더욱 선호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개념 플러스

도태

여럿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줄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

20 [서술형] 유리벽은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무인 단말기는 편리한 기기이지만, 무인 단말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나 시각 장애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을 ㉠에서는 유리벽의 특성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1 이 광고는 부모님께 다정한 말로 마음을 표현하도록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2 부모님께 무심하고 무뚝뚝한 태도를 보이는 주인공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광고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라는 내레이션을 통해 부모님께 마음을 드러내어 표현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② 주인공이 타인에게는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부모님께는 통명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부모님을 대하는 주인공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다.

③ 주인공의 대조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유사한 상황을 나열하여 주인공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식사 대접, 생일, 기다림 등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일상생활의 사례를 제시하여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23 선배가 밥을 사 준 상황, 여자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상황, 동료들이 자신을 기다려 준 상황에서 타인에게는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부모님께는 무심하고 무뚝뚝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광고를 만든 이는 부모님께 하는 말인 ㉠을 표현할 때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무뚝뚝하게 말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다.

24 [서술형] 이 광고는 부모님께 무심하고 무뚝뚝한 자녀의 태도를 문제삼고 타인에게는 너무도 쉽게 하고 있는 ‘고마워, 축하해, 미안해’ 같은 마음이 담긴 말을 부모님께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서술·논술형 문제

본문 294~295쪽

01 (가)에서 삼촌의 꾸중을 들은 문기는 삼촌을 속인 것과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함부로 쓴 것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는 반면, (나)에서 남은 돈을 고깃간 주인에게 돌려준 문기는 계속 돈을 요구하는 수만이와 외적 갈등을 겪는다.

02 삼촌은 문기의 행동을 꾸짖음으로써 문기가 자신이 한 잘못을 인식하도록 만들어 문기의 내적 갈등을 심화한다.

03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이에게 줌으로써 수만이와의 갈등에서 벗어나지만, 숙모의 돈을 훔쳐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

04 (가)는 시계가 없어 시간을 물어 보는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여 적절하게 대화하였고, 반면에 (나)는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니 게임을 그만하라는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지 못하여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05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조건 없이도 상대방에 대해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출 것을 유도하고 있다.

06 ㉠에는 ‘소외되는’, ‘단절되는’, ‘불편을 겪는’ 등의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뉴스는 어르신 고객과 시각 장애인 고객의 인터뷰를 제시하고, 마지막 말에서 어르신 고객이 나 시각 장애인 고객처럼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여 무인 단말기의 확대에 의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요소 소설의 갈등 양상 파악하기

01 (가)에서 삼촌의 꾸중을 듣고 아랫방에 내려와 혼자 된 문기는 ‘갑절 얼굴이 달아’오르며, ‘생각할수록 낮이 뜨거워지는’ 감정을 느끼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나)에서 수만이는 고깃간 안마당에 돈을 던지고 와서 돈이 없는 문기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더 심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기는 수만이와 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가)와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을 바르게 답하였으며, 그 원인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가)와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 중 하나만 바르게 답하였으며, 그 원인도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가)와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의 종류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갈등과 관련된 인물의 역할 이해하기

02 삼촌은 일찍 돌아가신 문기의 어머니와 거처 없이 떠도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문기를 키우는 인물로, 문기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삼촌은 문기의 수상쩍은 행동에 대해 꾸중을 하고, 문기는 삼촌의 꾸중을 듣고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삼촌은 문기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문기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문기의 내적 갈등과 삼촌의 꾸중을 연결 지어 삼촌의 역할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삼촌의 역할을 설명하였으나, 문기의 내적 갈등과 연결 짓지 못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갈등 해결 방법 평가하기

03 수만이는 ‘도적질’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따라다니며 문기를 괴롭히고 있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더 심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괴로워하던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이에게 준다. 이로 인해 문기는 수만이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돈을 훔쳐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심화된다. 이는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평가와 그렇게 평가한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하였으나, 그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대화를 추론하며 듣기

04 (가)와 (나)는 동일한 표현이 상황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화 장면이다.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은 단순히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를 묻는 말로 사용될 수 있지만,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가)는 정원이이 시계가 없는 상황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성주가 시간을 묻는 정원의의 의도를 고려하여 대답

했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성주가 6시까지만 게임을 하기로 아버지와 약속했는데 이를 어긴 상황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성주는 아버지가 약속을 확인하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서 게임을 그만하라는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상황 맥락과 화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가)와 (나)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상황 맥락을 고려하였으나 (가)와 (나)에 나타난 화자의 의도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광고의 숨겨진 의도 파악하기

05 광고의 화자는 ‘사람이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런데 ‘꼭 누군가의 가족이어야 하는 걸까?’라고 함으로써 꼭 누군가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사람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광고에 숨겨진 화자의 의도를 가치관과 연관 지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화자의 가치관만 추론하여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뉴스의 의도 추론하기

06 뉴스의 숨겨진 의도를 추론할 때는 뉴스에 사용된 단어, 제시된 정보, 화제에 관한 평가 등을 유의해서 들어야 한다. 이 뉴스에서는 무인 단말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고객과 시각 장애인 고객을 인터뷰하여 무인 단말기 사용에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편리함을 위해 무인 단말기를 도입했지만 살펴봐야 할 대상이 있다는 말로 마무리하여 무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 뉴스는 무인 단말기 사용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무인 단말기 사용 확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비판적 태도와 연관 있는 ‘소외되는’, ‘단절되는’, ‘불편을 겪는’ 등의 수식어가 들어가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수식어를 적절하게 제시하였고 두 가지 이상의 근거를 타당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수식어는 적절하게 제시하였으나 근거가 부족하거나 타당하지 못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